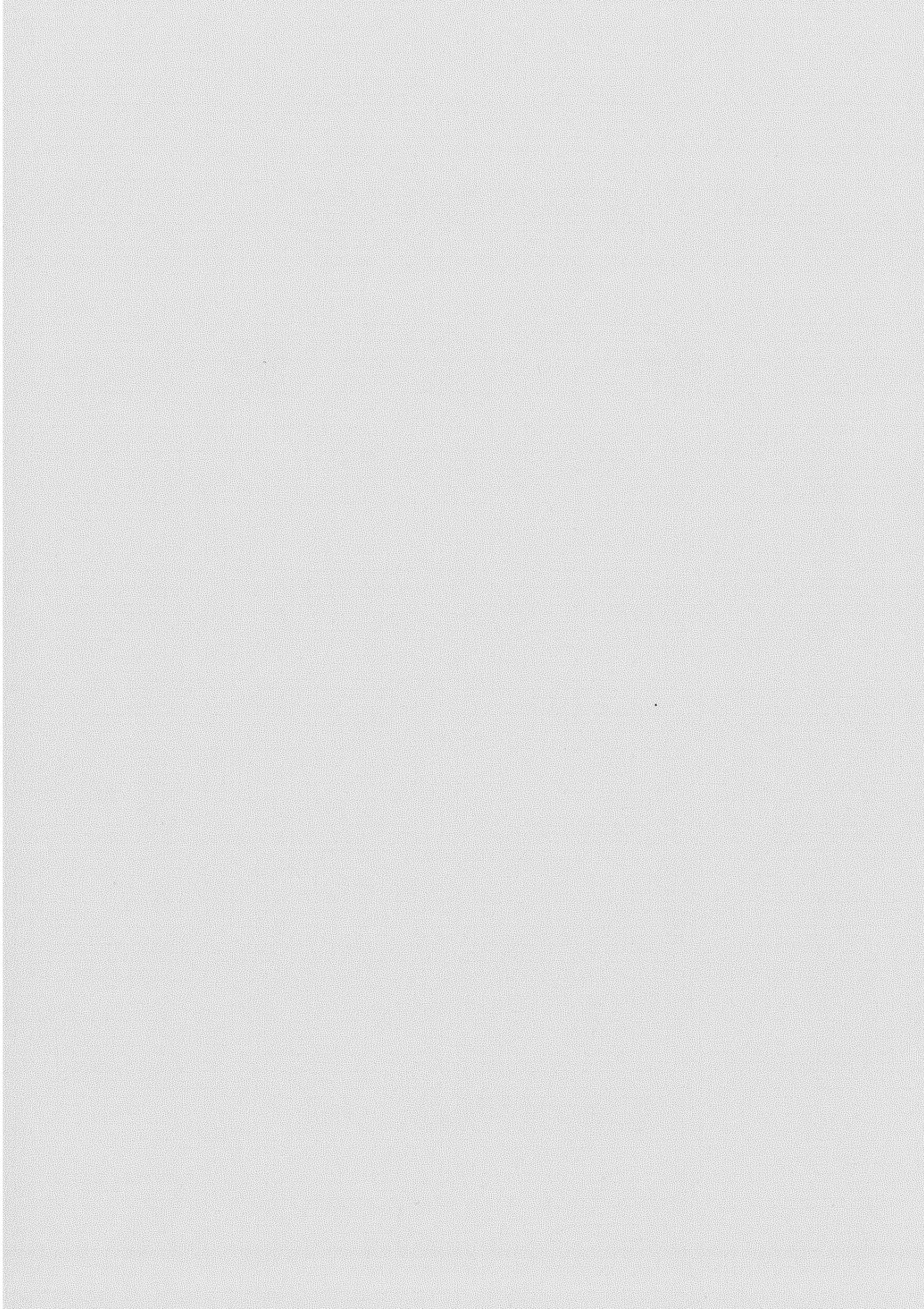


第12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1.5.9.~5.1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27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69
II.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71
III.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79
IV.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105
V. 부 록	
1. 의사일정 .....	139
2.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 채택의건 .....	141
3. 서면답변서 .....	145
4. 질문요지서 .....	18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9일 (수요일) 13시 57분

## 開會式順(第127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3시 57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 ● 의사담당 김왕년

(14시 00분 폐식)

지금부터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9일 (수요일) 14시 00분

## 議事日程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예곡시정족구결의문채택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일위원 외 2인 발의)
4.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예곡시정족구결의문채택의건(이기수위원 외 6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서는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손만재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4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수 교육위원 외 5인의 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

[제127회-제1차 본회의]

회요구가 있어, 2001년 4월 30일 공고 제 2001-4호로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5월 8일 이기수 교육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채택의견이 발의되었고, 2001년 5월 5일 이상일 교육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견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에는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채택의견을 처리하시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2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02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견과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채택의견을 처리한 후,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

문을 하도록 하고, 5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청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04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상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2명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

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 일시는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0일 오전 11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1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각 국장·과장급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여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조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일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일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조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문채택의 건

(14시 07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위원께서 발의하신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문을 본 위원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 전국교육위원회 일동 명의로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행위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기에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일본정부가 또다시 저지르려고 하는 역사적 침탈 만행을 엄중히 경고하고, 그릇된 역사관을 바로 잡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끝

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우리 민족의 쓰라린 상처를 다시 한번 짓밟아 제국주의의 길로 나가려 함에 있어, 우리 교육위원은 지난 3월 5일 전국교육위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검인정을 부여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숨기려 하고 있고 이를 바로 시정하지 않는 바,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150만 도민과 더불어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마땅히 우리 국민과 아시아 피해 당사국에 사죄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도 이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우리의 역사관을 바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우리와 주변국의 역사를 바로 알도록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150만 도민과 학부모 및 학생 등 우리 모두는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과거 일본 침략적 만행을 또 다시 표출시킨

것으로써,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자기 우월을 과시하려 한 의도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도민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I. 일본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시 시정하라.

I. 일본정부는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우리 민족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I. 일본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 앞에 굳게 약속하라.

I. 일본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민족과 주변국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확실히 시정하라.

I.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항상 인식하여 참회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라.

2001년 5월 9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 채택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즉시 주한 일본대사관에 송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충원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위원께서 회의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적인 대의기구 운영에 관한 방안을 말씀을 하시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일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저나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충북교육을 직접 이끌어 주시는 우리 김영세 교육감님 이하 교육가족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 우리 교육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

는 그야말로 우리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어떤 대립의 장이 아니고 생산성 있는 좋은 정책을 표출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서서 그간 동면에 가까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우리 교육가족이 바라보는 교육위원회 눈이 그야말로 걱려를 하실 수 있는, 또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은 저를 보고 아집이나 독선 때문에 자기의 권위나 애착 때문에 5분 발언이라는 제도를 악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찌 이러한 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위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저나 의장이 어느 누가 우리 위원회를 위태롭게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그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위원회를 우리 저와 의장이외의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공인으로서의 차가운 양심으로 오늘의 현실을 해결해 주셔서, 제가 위원으로서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충북교육에 저해가 있다는 결론이면은 이에 대한 마땅한 벌을 주시고, 또한 의장께서 본인의 잘못과 출장 중 대낮에 폭행을 자행하는 이러한 의장이 혹여나 잘 됐다면 상을 주시고, 잘못 됐다면은 응당 이것에 대한 처벌을 결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다고 국회에서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한시가 이렇게 비생산적인, 상호 비방하는 이러한 위원회의 모습은 하루속히 종결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 또 두분 위원께서 저를 친절히 방문하셔서 다섯 분이 어떻게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 결자는 누구고, 이 결자를 매듭을 해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하는 것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위원님들의 다섯 분의 의사를 전혀 전해 듣지도 못하고, 무슨 소리냐, 출장 중에 과음을 하고, 폭행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사과를 하고도 본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 이러한 인면수심의 오늘 의 의장의 저에 대한 비인간적인 태도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부탁 올립니다.

제가 만일 충북교육에, 우리 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파행으로 이끄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저에게 벌을 주시고, 공정한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하루속히 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청에 업무를 서로 협의하면서 독려하고 감리 감독해야 될 위원회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9개월여 지내오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무엇으로 그 죄가를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진심으로 충북 1만3천의 교육가족, 그리고 여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께 공인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올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공정한 해결책과 이럴 때일수록 더욱 충북교육을 걱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저를 그간 직·간접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일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교육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응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채택의건(별첨 2)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10일 (목요일) 10시 55분

## 議事日程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附議된 案件

###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55분 개의)

#### ● 의장 손만재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불출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부교육감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전국소년체전 대표자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도의회 결산검사 수행 관계

로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57분)

####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의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27회-제2차 본회의]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은 미리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진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에

● 조일환 위원

모두 자료도 있고, 그래서 행정질문 장소를 앉은 좌석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 주실 수 있죠.

● 의장 손만재

방법상 나오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회의규칙에는 발언대 또는 이 의석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발언대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시고 그렇게 양해하셔도 됩니다. 규칙이 무시되고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 의장 손만재

원 발언은 나오셔서 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앉으셔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꼭 그렇게 하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송진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하 위원 발언대로 나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세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이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통학로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학로상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으로 199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지정관리에관한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스쿨존입니다.

이 규칙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 지점의 통학로상에서는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스쿨존 제도가 사문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부족으로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고, 위반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 부처

간에 협조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등학교길이 걱정되는 많은 학부모들이 매일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있어 등학교 때 학교 앞은 주차장이 연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태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2000학년도 도내 교통사고 피해 학생수를 유치원 초·중·고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쿨존이 설치된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와 미설치된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스쿨존에 대하여 그 규칙내용이나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으로 합의기관에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스쿨존의 관리부서인 경찰청과 스쿨존의 설치목적에 위한 업무 절충을 하신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스쿨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어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아주 낮은 선진 외국과 같이 모든 차량이 규칙을 준수할 수 있게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결식학생 중식

비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인 학생들을 한끼라도 결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식의 사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결식 문제 해결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굶은 학생을 앞에 놓고 인성교육이니, 인간교육이니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학생이 점심, 그런데 급식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우선해서 해소시켜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결식학생의 선정시기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2000학년도 중식비 지원 인원과 지출금액을 초·중·고별로 말씀해 주시는데, 배정예산으로 지급한 금액과 학교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외부의 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1학년도에 중식비를 지원해야 할 학생수와 소요예산을 초·중·고별로 알려 주시고, 현재 책정된 예산과 부족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등교과 전담교사 배치상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초등교과 전담교사 수업은 교육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교육의 공급 수요 양측에서 더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는 문제

입니다.

그런데 금학년도에는 기획예산처의 교원 증원 거부로 교사증원을 못하게 되자 부득이 교과전담을 했던 교사를 담임교사로 배치하게 되어 교과전담 교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도의 실정은 어떤지 알고저 질문합니다.

첫째,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의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배치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영어수업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금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은 영어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학년도가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사에 길이 남게 될 만한 문제이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주시하고 있는 문제라고 봐서 행정 당국은 깊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 질문합니다.

첫째, 도내 전체 학교가 현재 영어로만 하는 영어수업을 어떠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이 있다면 교사의 문제점, 학생의 문제점, 기타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각해진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교사를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시켰고,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45세에서 57세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정년을 단축한지 몇 년 안돼서 응시 연령은 12세나 늘렸습니다.

현재 제7차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이 되었는데, 장기간 교육에서 떠났던 전직 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단에서 있습니다.

이 교사들이 개정된 교육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2000학년도 이전과 2001년도에 시행한 임용시험 합격자의 연령별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과정 시기와 퇴직 인원수, 즉, 퇴직 시가 몇차 교육과정 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차 교육과정 때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고, 5차, 6차 해가지고 몇 분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손만재

송진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북 교육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공무원과 교육가족들의 노고가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은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교실이 붕괴되어 간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부족현상, 또 교사의 사기저하 문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열린교육의 문제, 또 사교육 문제, 입시의 문제, 허다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린교육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열린교육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에 의하여 창안되었으며,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에 의해서 자리잡았습니다.

1920년대 영국의 유치원 교육에서 시작되어 1930년대 중반에 미국에 건너와 시행하다 그만둔 교육제도입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 시행한 바도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다가 그만둔 교육제도가 우리 나라는 1996년에 초등학교에 열린교육을 도입해서 불과 1,2년 만에 초등학교로 전면 실시에 이어 중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전통주의 교육이 교사중심 교육이라면 열린교육은 학생과 그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감싸는 학생중심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교육을 실시한 후의 문제점들은 중학교 1,2학년의 80%가 쉬운 방정식을 못 풀며, 계산기 없이는 셈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단군 이래의 최저의 학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사 위주의 수업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이 열린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효과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열린교육협의회 이사장을 맡기도 한 전직 장관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관계화 되면서부터 실패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앞으로는 열린교육에 대한 용어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실패한 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또 이것을 추진했던 교육 관료들은 선생님들이 열의가 없기 때문에 열린교육이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교육의 백약이라고 믿고 있는 이 열린교육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와 같이 지금 중단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도 열린교육과 같이 많은 좋은 점을 가진 교육과정이지만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준별 수업에 새로 생기는 우열반의 편

[제127회-제2차 본회의]

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동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실의 소요와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하여 2000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은 시행하였고,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는 등 앞으로 점차 실시할 예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상 발견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학생 통학로 및 번두리 학교의 통학시내버스 배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말 발표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잣대로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청주시가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발표된 국내 2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금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청주는 25개 도시 중 종합순위 22위로 하위그룹인데 비해, 부산과 서울이 3위와 5위, 우수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서울은 2.46명, 일본 오사카

는 0.97명입니다, 가장 적고, 청주는 11.29명으로 하위그룹에 속하는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상자수를 보면, 232.8명으로 역시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인 창원 120.4명, 오사카는 60.98명입니다. 이 창원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130명대인 부산과 서울은 2위, 3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로서 엄청난 불명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나 분석이나 대책이, 이것에 대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보다 자동차가 많고 사람도 많은 서울과 부산의 교통문화지수가 청주보다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청주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좁은 통학로, 특히 청주중학을 가는 그 통학로에는 양편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걸을 길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결국은 차가 다니는 그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이 통학로 확보를 할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청주시 변두리 학교 세광고등학교나 충북공고 그쪽의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합니다.

이 학생들의 통학이 편리하게끔 시내버스 배차는 어떠한 것이며, 이 학생들에 대한 불편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내 여자고등학교의 학생수용 능력 부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의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기준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녀별 탈락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구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여자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방과 금연운동을 위한 금연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금연교실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열다섯살에서 열아홉살, 19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의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수준이라고 그러합니다.

지난 5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내용을 보면, 한국 남자고등학교 학생 흡연율이 27.6%로 세계 최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권에 일본에 8%, 중국에 23%, 대만에 24%, 홍콩의 16%, 필리핀 10%보다 월등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고생의 경우도 10.7%로 일본의 1.5%, 중국의 5%, 필리핀의 4%보다 높습니다.

남자 중학생은 7.4%, 여중생도 3.2%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흡연의 인구가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체계적인 금연교육으로 흡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 청소년 흡연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또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은 폐암 등 건강상 문제뿐만 아니라 탈선과 비행의 초기경로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각종 질병 유발 등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담배를 마약으로 선포하고 금연운동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학생금연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스스로 담배를 끊으셨다고 하는 신선한 보도를 감명깊게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시책에 맞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청소년 금연운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 초·중학교 중 교장·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초·중등교원 증원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도내 23개 초·중학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학교 중 교장이 없어서 교감 선생님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학교가 열두 개이고, 교장선생님은 있으나 교감이 없는 소규모 중학교가 다섯 개 학교,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초등학교가 여섯 개 학교 등 모두 스물세 개의 학교에 교장·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장이 배치되지 않아 교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충주 노은중학교나 제천 백운중학교는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장선생님은 대외적인 업무수행과 통괄, 교감은 대내적인 업무수행으로 학교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업무는 많은데 선생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욱 업무가 과중되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유대관계가 소홀해지는 등 지역사회 학교 역할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충주의 노은중학교를 얼마전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기관장이나 학부모들이, 왜 농촌학교는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느냐, 교장도 배치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강한 질책을 받은 바도 있고, 며칠전부터 제천 백운중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유지들도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해와서 빨리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한 교장·교감의 증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떻게 변경된 지침은 없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내 교장·교감, 전문직 및 행정직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계와는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 기관에서 유엔개발계획에 여성권한지수 산정방식에 따라서 전국에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가 얼마전에 봤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충북의 여성권한지수가 전국의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권한지수란 여성들이 정치, 사회, 경제, 교육에 참여하는 지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충북이 제일 꼴찌인가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기사에서는 우리 충북 지역 분위기가 여성에게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구가 국민의 절반인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존여비사상, 이것은 곧 출산에도 반영이 돼서 남아선호사상으로 이어지고, 남녀성비의 불균형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초등학교에 여자 짝꿍 부족에 이어서 신부감 부족이라는 큰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 발표를 보니까 2000년 결혼정년기의 남자수가 여자보다 22만 17명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자료의 추계에 의하면 이런 불균형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의 교장·교감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연구사 중 여성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행정직의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일 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발언대로 나옴)

###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가지수가 한 열가지가 돼서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질문입니다.

세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현황을 제가 대충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할테니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곁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보면 현직 교원들의 학력상승을 위한 한국교원대학 대학원 과정 파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종합 교원양성 기관인 한국교원대학이 있어서 교원양성과 재교육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은 교원양성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재교육기관으로서 많은 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현직 교원들의 학력상승을 위해서 대학원 과정에 매년 3,40명 정도를 파견 형식을 취해서 진학시켜 왔고, 타 시·도 지역보다도 입학정원이 많아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왜일인지 유독 우리 충북지역만이 그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멀리 타 지역도 아닌 바로 우리 고장에 이런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불가피하게 자비를 들어서 일반대학원에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지난 '99년도까지 한국교원대학에서 석사과정 이상 파견형식으로 진학한 교원은 몇 명이나 되며, 둘째는 유독 우리 도만 이를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는 앞으로 이러한 파견교원을 교육을 다시 재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고 하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대안제시 합니다.

타 시·도도 어려운 사정은 같을텐데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단위학교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학교장 권한 확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황입니다.

교육행정의 민주화의 기반은 단위학교 행정의 민주화가 그 기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이 바로 단위학교 행정의 민주화이므로 과연 얼마나 일선교장들에게 자율권을 줬느냐가 교육자치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교원의 교권이 확립되고,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육에 열심히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또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이 언어적인 유희요, 벽에 붙어 있는 액자 속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

니다.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일선 현장의 많은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교원들은 교원대로 상급 감독 관청의 지시와 명령에 시달리는 것으로 일관하는 곳이 바로 학교현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교권 확립은, 학교장 중심의 운영은 교육자치는 요원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한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말이 별로 들리지 않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금년들어 본도에서는 학교장 중심 운영을 위해서 2000년도에 비해 어떤 점을 달리하고 있고, 개선하였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는 특별한 조치나 대책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각종 감사자료나 실적자료로 제공되는 권한위임같은 사항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정부나 교육부 지침상 전국이 모두 다 같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টে일 테고,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일 테니 모든 시·도가 경쟁적으로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러한 제도나 지침이 현장에서 실천이 제대로 안된다는 데 문제

가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 연도별로 비교해서 일선 학교장에게 특색있게 행정 권한 위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학교와 같이 초·중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들의 학교행정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황입니다.

교육선진국이란 교육기자재의 과학화는 물론이지만, 이에 앞서 교육을 담당할 전문적인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에 행정책임자 배치는 어느 분야의 교육기관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교육청 관할하에 특수학교 가운데 공립학교로는 청주혜원학교와 청주혜화학교가 있습니다.

청주혜원학교의 학생수는 유치원 8명, 초등 100명, 중등 154명으로 중등과정의 학생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청주혜화학교의 학생수는 유치원 9명, 초등 49명, 중등 46명으로 초등학생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교원수는 청주혜원학교가 유치부 1명, 초등 14명, 중등 25명, 교감 1명 중등자격증 가진 분이고, 교장은 초등자격증 1명이고, 청주혜화학교는 유치부 1명, 초등 11명, 중등 10명, 교감 1명, 교감 1명은 초등이고,

교장 1명은 이도 역시 초등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한 기관의 관리책임자의 보임은 기관의 운영력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를 통괄하는 지역교육청의 장의 임명이나, 초·중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임명에 있어 교원 및 학생들이 구성과 교육 목표, 내용,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책임자의 자격요건이 대단히 중요한 고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면은 특수기능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보다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다른 단계의 두 교육내용을 교육하는 통합교육기관의 경우 구성 학생수나 교원수가 많은 편의 상 위자격 소지자가 책임자가 아니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통합 교육기관의 경우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모두 동일 단계의 교원일 경우에 안게 되는 문제점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려해서 다음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도내 특수학교의 경우 통합 특수학교의 경우 현직 교장과 교감의 초·중등 자격증 소지현황은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성 학생수와 교원수를 초·

중별로 따져볼 때 더 많은 쪽을 전공한 교사 출신의 책임자가 아닌 학교와 그렇게 배치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중 통합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이 동일한 교사 출신인 학교와 그렇게 된 연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입니다.

우선적으로 공립학교부터 첫째, 교장의 경우 초·중을 구분해서 구성 학생과 교원수가 더 많은 쪽의 과정을 전공한 사람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감과 교장을 초·중 전공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선별 보임함으로써 교육의 운영을 철저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전에 질문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그 통계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역시 같은 특수학교문제, 특수학교 학생 급식관련 문제입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결손가정이 많으며, 또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점심식사 한끼의 비용이 75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는 800원 정도였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결식학생들에게 중식비가 현물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특수학교는 방학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금년에 특수학교 학생 1인당 연간 책정되어 있는 중식비 예산은 얼마이며, 단가를 800원으로 50원 인상입니다, 인상 시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도내 특수학교 학생 중에서 결식학생은 도대체 몇 명이며,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할 경우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특수학교 문제입니다.

특수학교의 점검과 설치에 관한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제56조와 특수교육진흥법 21조를 보면, 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 교육기관은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혜원학교는 전공과를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혜화학교는 특수교육이면서도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부족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신지체학생들은 지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반 학교로의 진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더욱이 더 기술교육을 위한 전공과가 필요하고, 수업연한도 최소한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청주혜원학교의 전공과정 교육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년 과정으로 1년을 연장할 경우 과정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입니다.

전공과정이 없는 청주혜화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시는지.

대안 제시입니다.

청주혜화학교에 빠른 시일 안에 전공과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두 학교와 같이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정 교육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인사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내 인사에 대한 학교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조직체에서 인사, 즉, 사람이 하는 일은 조직운영의 핵심을 이루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 즉, 모든 일, 전부 라고까지 합니다.

일선 학교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면서 교육수요자와 교육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발전을 이루고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야말로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선 학교는 학교장 중심 운영을 하되, 학교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교내 인사문제를 내실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결정하도록 마련된 장치가 바로 교내 인사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교육주체인 교사들로 이루어진 인사위원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매우 비교육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어느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교장의 자문기구 역할이지만 현재와 같이 교내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

다.

일선 53개교 교사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위원장이 교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교장이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등 민주적인 인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 결정을 학급배정, 사무분장 등에 반영된다는 응답이 40%, 부장교사 임명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 37% 등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교내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 첫째,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실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둘째는 이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교내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또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셋째, 만약 위 설문지 결과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교내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즉, 학교장의 인식부족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집행청의 지도가 미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시는지.

넷째입니다.

일선 학교 교내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더 이상 형식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교내 인사위

원회가 있으나 마나 라는 말이 더 이상 공론화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안 제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 HACCP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제가 다섯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HACCP시스템 도입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인데, HACCP시스템은 1960년대 미국에서 우주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우주비행사들이 먹을 식량을 영양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필즈버리사에 의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우리말로는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93년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서 HACCP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기준을 각국에 권고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식품에 대한 규격기준으로 HACCP제도를 도입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이 자국 수입 식품 제품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1995년 식품위생법으로 1998년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HACCP시스템 적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도 1999년에 HACCP 적용 연구를 실시하여 지난해 일부 학교에 시범 적용하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논의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자체조리시설을 갖춘 학교를 대

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듯이 본 HACCP시스템은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채택되어야 할 위생관리 수단이며, 지난 연말 집행청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국정감사에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미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매년 거르지 않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발생 정도도 점차 대형화 되어 건수에 비해서 피해 학생수가 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때 학교급식에 이렇게 좋은 제도인 HACCP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선 급식 현장이 이 HACCP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검수하고, 보관하고, 처리한 후 조리하고, 각 교실로 운반하거나 배식하고, 다 먹고 난 식기, 식판 등을 세척하여 정리정돈해서 다음날까지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모두모두에서 음식물이 비위생적인 요소인 감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HACCP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일련의 급식 전 과정이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작년 여름 본 위원들 일동이 몇 군데 학교급식 현장을 돌아보고 알고 있듯이 현재의 우리 학교급식 현장들이 HACCP시스템이 요구하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행주, 칼, 도마와 조리종사까지 끼고 있는 장갑, 심지어 공기 중에 낙하세균까지도 표본검사 하도록 HACCP시스템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교 조리실은 한여름엔 한증막이 처리가라 하고, 겨울철에는 바닥에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서 종업원들이 실내에서 난로를 피우고 부식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웬 만큼의 배기시설에 의한 환기도 최소한의 냉·난방에 의한 적정온도 유지 조차도 안되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과연 이 제도가 어느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지의문스럽습니다.

질문입니다.

금년에 HACCP시스템을 적용하는 급식학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금년에 HACCP시스템이 적용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환경 및 각종 검색장비 등의 유보 정도, 급식 종사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HACCP시스템이 급식학교에 확대 적용되어 이상적인 제도로써 정착되고, 비위생적인

급식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질문의 여섯 번째입니다.

시지역 학교의 부족시설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장기 수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OECD국가 평균수준을 목표로 함에 따라서 시지역 소재학교의 경우 학급증가로 인한 교실수의 부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다양한 용도의 각종 특별교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의 대책입니다.

현재 시지역에 학교신설계획을 보면, 2003년도까지 청주시 지역에 초등학교 4개, 고등학교 1개, 충주지역에 중학교 1개, 제천시 지역에 초등학교 1개 등 7개교를 신설하여 시지역에서의 학생수용을 해결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학교신설계획은 모두 신개발 지역에 아파트 단지 신축조성에 따른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가 과밀한 신흥지역에 위치한 학교들, 예컨대 청주의 용암, 분평, 가경지구나 충주의 칠금, 연수, 용산 지구 등에 있는 학교들의 학급 증가요인은 여전히 있

다고 봅니다.

이러한 학교들 대부분 이미 과대학급의 학교로서 해마다 하는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만으로 교실부족 사태를 예상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정규교실 이외 특별교실의 추가 여유도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7차 교육과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특별교실의 확보는 가능한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듯 지역 신개발 지역에 이미 개교한 학교들이 거의 모두가 더 이상의 교실증축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학교건물의 다양한 설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지역 소재 학교로서 현재까지 세워진 장기 수용계획으로 봐서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으로 교실이 부족하게 되는 학교를 지역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전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교실이 부족한 학교수를 초·중학교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해당할 것으로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방금 질문드린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으로 교실이 부족하게 되는 시지역

학교들에 대하여 부족교실 해결 대책을 밝혀주시길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증축을 할 경우에는 본 건물에 이어서 짓는 수평증축인지, 위로 한층을 올리는 수직증축인지, 아니면 별개의 동으로 증축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구두답변 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셋째, 앞부분에서 제시한 바 있는 2003년까지 신설할 예정인 시지역 7개 학교에 대하여 계획대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구를 개발할 경우 개발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지역 교육청과 학생수용계획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신설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지역에 몇몇 개발지역에는 취학생 수요예측이 불충분하며, 기왕에 결정된 신설학교 부지를 뒤늦게 해제하는 등 수용계획의 혼선과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상태 등 수요예측상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또 역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지역의 경우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할

만큼의 건물증축 공간도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외 대안 제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교원단체의 교섭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원들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데, 법조문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 규정이므로 가입 여부는 교원 개개인의 온전한 자유의사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교원단체로서 기존의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이...

● 의장 손만재

위원님, 20분 초과 되었습니다.

● 이충원 위원

예, 예.

이것만..., 그 대신 제가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등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단체는 모두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외적으로는 알려진 대로 교원노조와는 적잖은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노조 측과는 지난해 말 단체교섭타결 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하거나, 혹은 절대

없었다고 하는 등, 이 이면합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두고 하는 해석상의 차이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양 교원단체와 현안문제는 각각 무엇인지요.

둘째, 이들 교원단체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교섭사항들은 무엇이고, 그 내용 중 가장 갈등이 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양 단체의 향후 발전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즉, 2000년도 말 현재 양 단체 가입인원, 2001년도 초 신규 가입자 수가 파악이 되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쭙보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사학법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특히, 서원학원 내의 학교들은 노후시설 개선대책을 머리에 두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3개 사학법인에서 29개 각종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에서 이들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교육으로 해야 할 부분을 사학들이 떠맡고 있습니다.

공·사립 구분없이 다니고 있는 학생 모두에게는 교육밖에 최적의, 또한 충분한, 그리고 똑같은 교육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당국 또는 마찬가지로 최선의 교육여건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립 학교간에 교육환경이나 시설 등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부족한 교육재정에서나마 어렵게 이들 사학교육이 정상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사학재정 결함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학법인도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사학재정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가지 의장님 지금 재촉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만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학 중에서 가장 지금 보조해 줘야 될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보는지요, 시급히 보조해 줘야 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특히, 서원학원의 학교들의 낡은 시설에 대해서 현재 집행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

고 계시는지.

법인 인수자가 결정이 되건 안되건 워낙 다급한 문제이므로 관계자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대책을 연구하고 그런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급한데, 예산 사정이야 물론 어렵겠지만 학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서서 무슨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부 사학들의 불만은 공평한 시설, 학교별로, 재단별로 공평한 시설투자보조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요구한 청주지역,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 사학법인에, 충주, 청주지역 사학법인에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서 보조한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비교론적으로 제가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욕심은 과하고 질문할 것은 많고 그래서 부지런히 읽다보니까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해서 미안하고, 한두가지 빼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추가질문 때 그만큼 덜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충원 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한 사항도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회록에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는 오늘 위원님께서 다 발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내드린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질문요지서(별첨 4)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조일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저는 시간을 꼭좀 지키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과연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아마 오늘 조간신문을 보신 우리 충청북도 도민께서는 막가파 교육위원이 뭐 할 말이 있다고 여기와서 행정질문을 하겠는가 하고 상당한 아마 자괴심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유 있는 저의 5분 발언이고, 저는 행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어떠한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타 위원님의 다섯, 여섯 배의, 밤을 세워서 나름대로 업무보고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일 분량이 많은데, 특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혹여나 우리 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또는 수신도 못하는 사람이 치국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만은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우리 충북교육이나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불행한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김정숙 의원이 한완상 부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공교육이 붕괴되느냐, 안되느냐, 붕괴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김정숙 국회의원께서는 장구한 시간 붕괴한 증거를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 후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우리 사회의 과즉물탄개다, 공자의 말씀을 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스스로 저의 모자람을 느꼈다면은 하루속히 고쳐서 바른 길로 수정해 갈 줄 아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태조 왕건에 대한 궁예의 모습을 가지고 어느 직장의 장과 비유하기도 하고, 정치인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아마 그 궁예의 모습처럼 아집스럽고 자만에 빠져서 제가 어제와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제 자신 자인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 도민의 교육가족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면서, 다만, 제가 두 번이나 우리 교육가족의 신임을 물어서 이 자리에 섰길래 오늘날까지 그 신임에 저버린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하루속히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없는 조일환 위원 나와라,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 질문을 할 적마다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마치 우리 집행청이나 또는 어떤 분들을 칭찬은 하나도 안하고, 매번 이런 것이 문제 아닌가 하고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 어느 개인이나 우리 충북교육을 짊어 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부족하나마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 충북교육이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바, 전국에 선두를 달리는 교육이라면 더더욱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부시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교육개혁 입법부터 상정을 시켜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육을 논하면서 제 작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이것이 얼마나 시정이 됐는가, 어떻게 이 시정 진행이 되어 있는가. 잘못할 수도 있

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속히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사항하고, 조치한 내용.

두 번째, 송진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초에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서 57세까지, 타 기관에서 보면 정말 부러워하면서도 한편 개탄합니다.

다른 것은 다 중복이 됐기 때문에 두가지만 추가로 질문합니다.

이 분들이 쉬었을 때 직업이 무엇이었던느냐, 직업,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다시 명퇴한 교원은 없는가, 명퇴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소규모 학교 교장·교감이 미배치 돼서 작은 학교에서는 업무나 또는 교육활동, 또는 교육계의 위신, 이런 문제 때문에 교장 없는 초·중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 동안에 많이 노출됐을 텐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해소에 대한 전망을 부탁을 올립니다.

네 번째,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교원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거긴 수시도 하고, 또 어느 교원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됐다가 중도에 사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옳으나, 그러나, 이런 문제도 더불어서 적정한 판단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서면으로 드린 것입니다.

고입의 비평준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주나 기타는 평준화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의 문제점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섯 번째, 저는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저도 충북, 저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도방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5일간. 5월 1일이 휴일이고 5일이 휴일이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게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닷새 동안에 여름방학을 할애를 하고, 며칠 동안에 겨울방학을 할애한다면은 그야말로 교육적으로 장기간에, 두달여에 가까운 겨울방학에 학생들의 학생 본분을 벗어나서 생활지도문제, 여러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제도를 심사숙고해서 한번 충북에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다면은 확대 시행을 한다든지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휴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학교의 시설기준이, 설치기준이 쉽게 말하면 들락날락하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중학교 6학년인데도 초등학교의 12학년인데도 지금 현재의 교실이나 기타 중요 교육시설이 과하고 부족하고 해서 학부모 간에 또는 학생들 간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그 기

준에 맞는 이러한 쪽으로, 물론, 모자라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은 모자란다면 동시에 같이 모자라야 될 것이고, 흡족히 시설이 완비된다면은 동일해야 됩니다.

또, 완급을 조절을 해서 어느 학교의 어느 시설이 급한가, 이 소요판단을 한 자료가 있으면은 제시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제천과 청주, 충주지역의 위장전입, 제가 학생수라고 그랬는데 전입 학생의 대책으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수를 일일이 조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역만은 그 주변에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위장전입, 제도가 단독도 전입이 된다, 또는 그밖의 어떤 합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만은 어느 아이는 돈이 있어서 아파트나 이것을 얻어주고, 또는 아버지가 자가용으로 매일 출퇴근을 시키고, 그것을 바라보는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입니다.

실제는 지금도 밤 11시에 딸을 데리러 아버지가 가고, 어머니가 가고, 마중을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충북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시하는 지시 때문에 타 지역보다 손해를 본다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모 지역은 교육부에서 아무 리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해도, 설혹 그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 또 그것이 금지됨으로써 막대한 사교육비가, 이러한 차원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지어 수능시험을 몇번 봐라, 학부모들은 대단 히 불편해 하면서, 입시제도는 안바뀌고 입 시준비 하는 방법만 바꾼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의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 인터넷 유해 사이트, 인터넷 유해 사이트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살소동도 생기고, 구속사건도 생깁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 인간생활에서 하나의 대화의 방법이고,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네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제,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충북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데에서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고 여기에 대한 사건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면...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 방법입니다.

제가 수차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 올 렸습니다만은 어쩐지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세균이나 박테리아, 기타 식수오염으로 상당한 문제가, 물과 공기를 따라서, 그것 식수를 한번 더 검사해서 그것이 뭐가 인력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됩니까?

최소한 1년에 네 번,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청주시도 한달에 한번씩 음용수, 식수의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실 용의나 또 각 청주시의 교육기관에 보편은 지하수를 검용해서 활용하면서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완벽한가, 물탱크, 수조의 위생관리가 철저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검해서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발생 증가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충북이 물이 나빠서 그런지, 음식이 나빠서 그런지 유독히 많아요. 이 식중독이 모 초등학교도 수백 명이 식중독을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보상받았다는 게 치료입니다. 이 학생들이 일주일, 보름씩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서, 외부에서 조달되는 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물려야지 겨우 치료비만 받고 끝났다, 또 영양사 한사람 이동으로 끝났다, 이것은 이 충북의 식중독이 예방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특히 외부에서 반입하는 식품에서 이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외부 식품을 반입을 자제하는 방안과 부득이 외부 식품을 급식으로 활용할 때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도 확실하게 그 보상이라든지 그 책임을 묻는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조관계는 우리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은 교원노조가 60일씩이나 노숙을 했어요. 신문에 의하면은 딸이 아버지에게, 추운 방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단체교섭을 한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바로 직전에 했습니다. 그 요구가 부당하다면은 부당한 대로 관철해야 되고, 해 줄 것이라면 그 고생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청 내에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항,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통사고는 분량이 많아서 담당자에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직위해제 하는데 어느 사람은 직위해제를 만약에 안했다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직은 왜 없습니까,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엄연히 약식명령,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직위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연인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분이 기소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혹시나 내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만은 있다면은 이것에

대한 양정의 형평을 유지하시고,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충북소년체전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단양교육청은 맨날 11번, 청주교육청은 맨날 1등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열등감을 주고 우월감을 갖는 이런 체전을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도민체전도 전국체전의 선수선발을 겸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타 연습이 필요없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체육의 화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총괄해서 각 지역을 고루 도민체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개최지역도 돌려가면서 순환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성과상여금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일곱 번째, 교감 이상의 교원직급 중,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하나만 더 여기서 첨가를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세계적으로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여섯 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는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도 정부에서 올해 장관을 비롯하여 차관, 그밖에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형식으로, 특별형식으로 여성을

정치, 행정, 사회에 참여시키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배당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평이라든지 여러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여성이, 교원의 프론테이지가 얼마입니까, 교원의 비율, 비율이. 초등의 경우에 60%가 넘지 않습니다. 여자가 교장이라고 해서 그 여 선생님이 기를 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남편을 보살피며 시부모를 모시면서도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서도 남자 못지 않은 길이 있다 하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장시간 제가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언론보도나 이런 데 비춰지는 것으로 봐서 과연 조일환이가 이 자리에서 행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아마 여러분들의 따가운 지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마쳤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제127회-제2차 본회의]

---

0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서면답변서(별첨 3)

▶ 질문요지서(별첨 4)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1년 5월 11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교육감님께서하시고 직제 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일환 위원께서는 사정에 의하여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 집행청에서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그러면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교육이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며 더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매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께서 펼치시는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도 편달이 본도 교육 발전에 힘찬 원동력이 됨은 물론, 각급 학교가 학부모와 도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과 조언은,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고 발전적 변화를 가속화 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시책구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것은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관계 국장 및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진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3학년 이상에 3학급마다 0.75인입니다.

2000학년도와 2001학년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상황은 2000학년도에 292명으로 20학급 이하 교 1명씩, 21학급 내지 32학급 이하 교에 2명씩, 33학급 이상 3명씩을, 분교장 2개 이상 교에 두명씩 배치하였고, 2001학년도에는 총 278명으로 교감이 배치된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배정하지 않았으며, 21학급 이하 교는 1명씩, 22 내지 37학급 이하 교는 2명씩, 38학급 이상 교는 3명씩을 배치하였습니다.

여기 5학급 이하 교에 찾다는 것은 5학급 이하 교는 교감을 배치할 경우에는 T/O 대신에 교감을 찾기 때문에 그것을 본도에서는 교과전담교사로 따진 것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한 교과전담교사 정원은 법정배치기준 대비 상당히 부족한 편이나,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정원을 해마다 증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교과전담교사 정원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선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입학 전형기준은 2002학년도 고입전형부터 내신성적, 즉, 교과성적 240점과 인성성적 60점을 합산하여 총 300점 만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교과성적은 1학년 성적을 20%, 2학년 성적

을 30%, 3학년 성적을 50%가 반영되며, 인성성적은 출석이 24점, 행동발달이 12점, 특별활동이 12점, 봉사활동실적이 12점 등으로 반영이 됩니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 순으로 남녀 구분없이 총 모집정원을 선발하며, 남녀 탈락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구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1학년도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남학생 266명, 여학생 162명, 총 428명이 탈락했었습니다.

이 탈락자들은 대부분 후기 분할 모집 고등학교와 또 미달된 이러한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오창고등학교에 80명, 형석고등학교에 117명 등 청주 인근지역 분할모집 고교에 200여명이 진학했고, 나머지 학생은 청원, 보은, 진천, 증평 등 청주시 인근지역 미달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1학년도에는 지난 해에 비해서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이 충북 전체에서 8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만 330여명이 감소되어 2002학년도 고입에서도 탈락자 수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여자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남녀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설립하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설학교

는 물론 기존학교도 남녀 공학으로 전환토록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실업계고등학교의 많은 학과에 남녀 구분없이 선발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신설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남녀 공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관련된 이상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중 여성의 비율은, 초등의 경우 교장 235명 중 여교장이 5명, 교감 235명 중 여교감이 11명으로, 여자 교장·교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3.4%, 16명입니다.

중등의 경우 교장 128명 중 여교장이 8명, 교감 140명 중 여교감이 6명으로 여자 교장·교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5.2%, 14명입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중 여성의 비율은, 교육전문직 전체 195명 중 여자 장학관이 1명, 여자 장학사·연구사가 21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입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행정직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6급 이상 행정공무원 정원 321명 중 여성공무원이 5급에 1명, 6급에 53명으로 전체의 16.8%입니다.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2001년 1월에 실시한 전문직 전형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해서 모집인원의 20%를 여교원에서 채용토록 하였으며,

여교원의 보직교사 진출 확대, 각종 연구대회 참여 권장, 전문직 전형 응시를 적극 권장하는 등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충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장 권한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권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육청의 역할기능을 관리 행정중심에서 정책 기획과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교육행정 전 부분에 걸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규제 완화를 하고, 권한위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 2월에 총 128건의 자율화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비 중 23종에 이르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에 통합하게 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30%, 이 30% 내용은 금년도 본 예산에 25%이고 추경예산에 5%를 반영하겠습니다. 30% 이상 대폭 인상하여 총액배분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운영권을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였으며, 학교장 재량으로 호도방학 등 체험학습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원사기진작 및 업무경감 10대 방안에 학교경영의 자율권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학사와 예산 운영 등에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나머지 실무적

인 것은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손만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진하 위원님의 통학로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 도내 교통사고 피해 학생수는 53명으로 유치원 부상 2명, 초등학교 사망 7명, 부상 10명, 중학교는 부상 4명, 고등학교는 사망 10명, 부상 20명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세 건으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의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규정하여 초등학교는 모두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위험지역과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에 관련한 공문을 2000학년도에 4회, 2001학년도에는 2회 시행하

였으며, 스쿨존 설치 필요시는 학교장이 매년 4월 10일까지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 스쿨존의 관리 운영은, 경찰공무원이나 모범 운전자의 협조를 받아 등하교 지도를 하고, 필요시는 학교장이 교사와 녹색 어머니 배치를 강구하는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스쿨존 교통안전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어수업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금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발표된 것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지시나 지침을 받은 바 없으나, 우리 도에서는 교실영어, 클래스 룸 잉글리쉬를 활용하여 교사 학생간 수업진행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영어로 진행하는 수준의 영어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에서의 영어수업 실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는 교사가 초등 173명, 전체의 10%에 해당됩니다. 중학교 36명, 전체의 11%에 해당되며, 몇 시간 또는 수업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하는 교사는 초등 1464명, 전체 82%, 아까 초등 10%와 합하면 92%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304명, 전체 89%, 아까 영어로만 하는 사람 36명의 11%까지 합하면 99%가 됩니다. 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수업 전담교사는 90명으로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급담임이 영어수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3,4월, 2개월간 시행한 결과 영어수업의 문제점을 보면, 초등교사는 10여 교과를 지도하는 담임전담으로 영어수업에 부담이 있으며, 학생들의 개인차가 심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의 적응이 어렵고, 초등학교 영어수업 전담교사의 정원확보 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의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의 연령별 인원은 20대가 291명, 30대가 63명, 40대가 1명, 계 355명이었고, 2001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의 연령별 인원은 20대가 102명, 30대가 5명, 40대가 75명, 50대가 75명, 계 257명입니다.

임용시험 합격자 중 교육과정 시기별 교직 중단 인원수는, 2000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중 1명이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교직을 중단하였고, 2001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중 교직 중단 인원수는 2차 교육과정 시기에 7명,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 64명,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15명,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 19명,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18명,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15명, 계 138명입니다.

임용시험 합격자 중 교직 중단자의 직업별 인원수는, 기간제 교사가 97명, 가사종사를 한 사람이 12명, 회사원이 11명, 학원

강사가 6명, 공무원이 3명, 상업에 종사한 분이 9명, 전도사가 1명이고, 명예퇴직교사는 7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였습니다.

2001년도 합격자 중 교직중단 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9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20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는 13명, 15년 이상은 86명, 계 138명입니다.

다음으로 결식학생 증식비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식지원 학생의 선정기준 및 선정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결손 가정, 보호자의 근로능력 부족 및 실직자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점심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은 전년도 11월 내지 12월 중, 신입생은 당해연도 3월 중에 조사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학년도 초·중·고별 증식비 지원 인원과 지출금액을 말씀드리면, 지원 학생수는 초등학교 4,449명, 중학교 1,580명, 고등학교 913명, 총 6,942명이며, 지원액은 총 45억 1,200만원으로 국고 및 교특비 39억 3,600만원,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지원금 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 지원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해 주고,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2,990명에게 6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지원 학생수 및 소요예산을 말

씀드리면, 지원 학생수는 초등학교 5,378명, 중학교 2,464명, 고등학교 1,715명, 총 9,557명으로서 2000년 대비 2,615명이 증가되었으며, 증식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액은 58억 7,700만원으로, 국고 및 교특예산 49억 6,400만원과 성금 2,000만원을 포함한 49억 8,4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부족액 8억 9,300만원은 충청북도와 시·군청의 지원을 받아 금년도 상반기 중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지원 예정액은 충청북도가 2억 8,373만원을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있고, 청주시가 2억 6,305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고, 기타 시·군에서 3억 9,154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식지원대상 학생 증식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지원대상자의 증가와 학부모의 지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기수 위원님의 제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운영은 어려움 없이 정착되고 있으며, 다만,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서 차상급 진급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기준을 금년 2월에 1,2학년용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2002년에는 3,4학년, 2003년에는 5,6학년 평가기준 자료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초등학교 전학년용 성취도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2002년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하여 일선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제7차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생의 선택 경향에 따라 과목별 교원 수요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제4회 교원 수요조사를 이달 5월 19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 경향이 집중되는 일부 교과에 대한 부전공 교사 연수를 실시해 이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주시 학생 통학로 및 변두리 학교의 통학 시내버스 배차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통학로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주중과 같이 등하교시 학생들이 길 양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학생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으로써,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배차 협조로 변두리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고, 2001년 5월 9일 현재 청주시내버스 배차시간을 확인하여 본 결과, 옥거리에서 세광고 행은 4 내지 5분 간격이고, 상당공원 부근에서 충북공고 방향은 10 내지 15분 간격으로 배차되어 있습니다.

노선 및 배차상의 문제점 및 학생 등하교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현재 청주시 교통지도계에서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조정 협의 중이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하여 학생 등하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미배치 학교 현황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미배치 학교현황은, 초등의 경우 교장 임용자원이 부족으로 교장 미배치 학교는 6개교이고, 교감 미배치 학교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6개교입니다.

중등의 경우도 교장 임용자원이 부족하여 교장 미배치 학교가 12개교이며, 교감 미배치 학교는 소규모학교 5개교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교무관리의 어려움 및 교사 업무 가중으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교장 출타시 학교

관리와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원대책 및 해소 전망은, 교장 미배치 학교는 교장 자격연수가 끝나면 2001년 9월 1일자로 모두 배치될 것이며, 교감 미배치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이 배정 되어야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운동을 위한 금연교실 운영실태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교실운영 학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청소년 금연운동의 해”로 제정한 범국가적 취지에 부응하여, 도내 전 학교에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교실 운영 학교수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56개교, 고등학교 33개교로 총 106개교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교사 지정배치 학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연지도는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교사의 지도사항이지만 담임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양호교사가 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와 생활지도담당/지정배치 학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학교에 생활지도담당 교사가 있고, 양호교사는 중학교에 40명, 고등학교에 3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양호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순회교사제 운영으로 학생 건강 및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을 초청

하여 교육실시한 학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1998년 이래 청주의료원 신경정신과를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기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중학교가 22개교,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각각 1만 675명과 5,588명으로 도합 1만 6,263명이 교육에 참가하였고, 지역의 의사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최한 금연교실에는 중학생 1,075명, 고등학생 4,311명으로 모두 5,386명이 참가함으로써, 총 2만 1,64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연교육교재 발간을 위하여 위촉 기관에 교재개발비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여, 2000년에는 금연가이드북을 개발 배부하였고, 올해에는 “금연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금연수첩을 500부 발간하여 도내 전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약물 오·남용 코너를 개설하고, 금연 관계 교육자료를 26건 탑재함으로써 모든 학교가 이를 이용하여 금연교육자료 및 교재를 발간하여 교원 연수와 학생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충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운영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와 같이 초·중과정 통합운영 학교들의 교장·교감 배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정신지체 학교인 혜원학교는 교장은 초등, 교감은 중등자격소지자이며, 지체부자유 학교인 혜화학교는 교장·교감 모두

초등자격소지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특수학교 교장·교감자격은 초·중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학교 교원 중 특수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교장과 교감을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교육 전공 출신자들이 상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전공 출신자를 책임자로 배치할 것입니다.

초·중통합 운영임에도 동일 출신 교장·교감이 배치된 학교는 지체부자유 학교인 혜화학교이며, 그 이유는 개교 당시에 유·초등부만 설치되어 초등출신의 학교장과 교감을 배치한 이래, 고등부가 완성된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별로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학생급식 관련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1인 1식당 750원씩 220일 지원하여 학생당 연간 16만 5,000원이 책정되어 총 2억 4,585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1인 1식당 800원 지원시 1인당 추가소요액은 1만 1,000원으로 총 1,639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실정이며,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의거 중식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어, 특수학교는 중식지원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초·중·고의 평균 비율이 3.84%로 산정시 사설학원생을 제외하고 30여명으로 추정되며, 방학기간중 중식비 지원시 54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5일 이전에는 전공과를 설치할 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교육부에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 혜원학교의 전공과를 1년으로 설치한 것은 교육부의 인가 사항이었습니다.

청주 혜원학교 전공과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칙개정 후 신청을 하면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과를 2년으로 연장 시는 시설비, 장비비를 제외하고도 인건비 3,500만원과 운영비 700만원 등 연 4,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공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청주 혜화학교에 전공과정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2억, 장비비 1억, 훈련지원비 2,000만원, 인건비 7,000만원, 운영비 700만원 등 설치 첫 해에만 약 3억 9,7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99년 3월 15일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의 개정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전액 모두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무시간 중 교원의 각종 회의 참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간 교원참석 각종 회의의 총 횟수와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으로 인한 수

[제127회-제3차 본회의]

업결손에 관하여는 지역교육청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결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일과 중 교원대상 회의 및 행사참여를 억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장·교감이 참석하거나 일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2001년 4월 23일자 공문을 통해 각종 외부 행사에 교사동원 억제를 시달했고, 수업결손 부분에 대하여는 보강과 교체수업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평상시의 회의소집은 교장·교감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행정전산망과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현직 교원들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과정 파견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까지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특별연수 파견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사 124명, 중등교사 131명으로 총 255명을 파견했습니다.

현직 교원의 교원대 파견 특별연수는 2년 과정으로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86년 1명을 시작으로 '98년 32명, 모집정원의 15.6%에 해당됩니다. 32명으로 점차 파견인원을 늘렸으나, 교원 정년 단축과 총 530명에 달하는 정원감축으

로 인한 교사부족 및 IMF사태 이후 건축 예산편성 등의 사유로 '99년부터 교원대 파견을 보류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면 특별연수 파견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학교인사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교원인사 업무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1990년부터 설치 운영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7년 1월 1일부터 위 권장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근거는 존속하는 행정명령, 훈령, 예규, 고시 제외 외 모든 행정명령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인사자문협의회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존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자문협의회 운영이 형식적 경향이 있는 것은 자문기구로 의결기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학교경영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장의 인사권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단체와의 교섭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원단체연합회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간에는 특별한 현안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는 2000년도 제7차 교섭소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합의사항 전문에 충북 교육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차원에서 근거없는 음해성 상호 비방행위 일체를 금지하기로 확약하고 10개항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항 중에는 단체협약의 이행상황 점검과 당면 교육현안 논의를 위해 4개월에 한번씩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은 실무협의단 간의 꾸준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단체교섭 협약 사항인 일·속직 제도와 주번교사제 폐지 등에 대하여 노조측에서는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단체협약 이후 공문지시를 통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도 이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바탕 위에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서 교원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가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교원수 1만 2,105명 가운데 교총회원은 47%인 5,635명이고, 전교조 조합원은 20%인 2,441명이며, 한교조 조합원은 1%인 129명이 각각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월 현재 1만 2,111명의 교원 가운데 교총회원으로 49%인 5,874명, 전교조 조합원은 21%인 2,638명, 한교조 조합원은 0.8%인 104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면합의서라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 4월 4일자 이면합의서라는 언론보도는 별도 합의서를 잘못 보도한 것으로, 교원노조의 요청으로 해당 언론사가 4월 5일 정정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별도 합의서 내용은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진학 희망수를 말씀드리면, 2000학년도 3학년 총 학생수는 1만 951명이며, 진학희망자는 그에 50.4%에 해당되는 5,515명인데, 그중 252명이 떨어져 5,263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희망자에 대한 지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졸업자 1만 951명 중 진학희망자는 5,263명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들 중 산업 및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이 4,771명으로 진학자의 90.7%이

며, 이들 대부분이 특별전형이나 동일계 진학을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진학을 위한 특별지도 없이도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 수업이나 자격증 취득자는 거의 진학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2+2 연계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전문대 진학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을 위한 특별지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적성검사와 상담실시 등으로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진학지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수능고사 없이 전문대 진학이 가능하나 4년제 진학을 위한 수능고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지도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3년간 상업계고등학교의 학교별 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계고등학교의 자격증 취득현황은 1999년도 3학년 총 학생수 5,257명 중 자격취득자는 2,901명으로 55.2%이고, 2000학년도 3학년 총 학생수는 5,148명 중 4,134명인 80.3%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25.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0% 이상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는 1999학년도 6개교이며, 2000학년도에는 11개교로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학교별 자격증 취득현황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HACCP시스템 도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HACCP시스템 도입학교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HACCP시스템이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으로 식단작성,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의 급식활동 전 과정에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기법으로서, 2000년도에는 18개 학교에 대하여 시범적용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3월 말 현재 초등학교 105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21개교 총 143개교가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지도 및 시설 설비개선을 통하여 전담직원, 영양사 또는 위생원을 말씀드립니다. 전담 직원이 배치된 학교에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HACCP시스템 도입 학교의 시설장비, 인력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HACCP시스템 도입 학교의 시설장비로는 위생해충 침입을 차단할 방충, 방서시설, 소독을 위한 소독시설, 식품검수 및 조리시 온도측정을 위한 온도계, 식품 및 식기류의 적정보관을 위한 냉동, 냉장고와 보관용구, 조리작업 및 세척을 위한 작업대와 찰크대 등을 위생 및 소독관련 기기 등이 있으며, 인력으로는 HACCP 팀장인 학교장, 실무책임자인 영양사 또는 조리사, 조리공정관리를 위한 급식 인원수에 따른 조리원과 시설설비 지원을 위한 행정실 관계자 등이 있는데,

보유현황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HACCP시스템 정착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시설 설비면에서 작업과정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을 오염구역과 비오염 구역으로 분류하고, 위생설비 기구 확보와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하며, 운영 관리면에서 학교장을 팀장으로 하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및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HACCP팀 구성 운영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적용 방법 및 위생 관념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50여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 의장 손만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님께서 학교 수용계획과 학교법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전체 학교의 교실부족 해소대책과 관련,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으로 하향하고, 도시 학급수 증가나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부족이 예상된다면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으로 인한 교실부족 현황과 위 학교들의 부족교실 해소대책, 현재 세워진 학교 신설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시지역 학교의 교실부족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정부 제시기준인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하향을 목표로 하는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2000년도에 자체재원 10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35실을 확충하였고, 2001년도에는 교육부 시설교부금과 자체재원 등 139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149실을 증축 추진하여 중·고등학교는 어려움이 없으나, 시지역으로 일부 초등학교는 부득이 과대학교 또는 과밀학급으로

[제127회-제3차 본회의]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대학교는 청주 올랑초등학교 등 도내 14개교며, 과밀학급은 청주 덕성초등학교 등 도내 6개교 48학급입니다.

일부 과대 및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초등학교는 이의 해소를 위한 자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청주 교동초등학교 등 6개 과밀학급 편성 학교에 교실 39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청주지역 덕성초, 봉정초, 올랑초 등 과대학교는 인근의 택지개발시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구조정 등을 통한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곡초등학교는 인근에 산남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에 학구조정을 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당초, 교동초등학교는 인근의 운동초등학교로의 학구조정으로 해소코자 검토 중이며, 충주 중앙초등학교는 인근의 택지개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분리하고, 제천 중앙초등학교는 2003년 3월 장락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택지개발된 분평지구의 원평초등학교의 경우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학교부지 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학교신설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개교예정 학교는 개신초등학교와 명암초등학교 등 2개교이고, 2003년도 개교예정 학교는 신봉초등학교, 장락초등학교, 지암초등학교 등 3개교와 중학교는 충주에 탄금중학교 1개교, 그리고 하북대 지역에 설립 추진하는 북대고등학교 1개교 등 총 7개교입니다. 이중 당초 2003년 9월 개교목표로 청주 봉명 신봉지구에 추진 중인 가칭 신봉초등학교는 건설경기 부진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설계획의 미확정으로 주민 입주시기가 불투명하여 2004년 3월로 개교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3월 개교목표로 청주 용암2지구에 추진 중인 가칭 지암초등학교도 건설경기 부진에 의한 아파트 분양률의 저조로 주민입주 시기가 지연되어 개교시기를 2003년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만은 향후 건축계획과 주민입주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 충주지역 사학법인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교육비특별회계 지원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공·사립 구분없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사립간 시설환경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학법인 중 시급히 보조해 줘야 할 학원은 어디이며, 항간에 사립학교의 공평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불평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서원학원의 남은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청주, 충주지역 사학법인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건축연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현 시점에서 어느 법인이 시급하다고 논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지원 시설은 특정 학원에 대하여 편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시설의 개축에 대하여는 건축연도, 노후도에 따라 학교법인의 중·개축 계획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원학원의 시설물은 전 학원이사장의 횡령도피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법인측에서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타 법인보다 다소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학교법인에서 종합적인 시설투자계획을 결정하고, 투자재원 부족 시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 예산중, 일반운영비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99년도에 151억 700만원, 2000년도에 197억 1,000만원, 금년도에 5월 현재 207억 5,200만원을 지원 또는 지원할 계획으로 사학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법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청주, 충주지역

에 소재한 청석학원 외 4개 법인에 대한 시설사업비는 '99년도 33억 1,300만원, 2000년도 48억 400만원 금년도 현재 6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인별로 지원된 일반운영비와 시설사업비의 세부내역 및 지원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들어감)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청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제127회-제3차 본회의]

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집행청 관계관계서도 앉아 계신 좌석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예,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질문한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희망하면은 거의 전부 임용시험에 합격이 돼서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교단을 떠난 지 15년 이상 된 분이 86명이 되고, 또 2차 교육과정 개정, 3차 교육과정개정 때 교단을 떠났다가 복직한 분이 70여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2차, 3차 교육과정개정이 아마 3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산이 바뀌어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그 동안에 교육과정도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그 임용고시를 채용한 사람들은 아마 2일간인가 간단한 강습을 하고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겠는데, 이 교사가 개정된 교육과정도 모르고 교단에 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격이 없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나 같은 그런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육과정은 알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의 위기니 해서 교육의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정도 모르고 교단에 서서 학생을 지도한다 할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학 때라도 이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감 김영세

지금 답변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 의장 손만재

부의장님 답변을 들어서야 됩니까?

● 송진하 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됩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시험에 선발된 그러한 분

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령 전에 직전 교육을 통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연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그 교육청 단위로 또 초등교사가 초대되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로도 직무연수를 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도 학교장이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특별 배려로 직무에 관계된 그러한 것을 지도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 김영서

내가 한말씀 대답해 드리죠.

● 의장 손만재

예

● 교육감 김영서

우선 먼저 보충질문 하는데, 내가 귀하 거시기 해서 그런지, 좌석에 앉아서 하는 마이크들이 성능이 시원찮은지 잘 안들겨요. 그것 좀 출력을 높이든지, 크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퇴를 한 분이 사실 기간제 교사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워낙 숫자가 없으니까 하게 돼 있고, 또 명퇴를 하고서도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다 하니까 명퇴 희망이 더 많이 늘어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족현상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2003년까지 가야 합니다. 2003년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이 명퇴교사를 가지고 기간제 교사를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령 상한선을 철폐하고서 했더니 그중에서 연령 많은 분은 거개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연령이 많은 분들 중에도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중간에 여교사 중에서 자녀양육을 위해서 그만두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실력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간에 기간에 교사로도 그 양반들이 활용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개 채용이 돼 왔어요. 그런데 우선 초등교사의 부족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등교원 함부로 갖다 쓰면은, 중등교원 함부로 갖다 쓰면은 앞으로 교육대학 출신들 취업 안됩니다, 2,3년 후에 가서. 그래서 연령 많은 분이 일부 들어오더라도 그런 분들이 그때 가서 오히려 퇴임을 해주면은 교대출신들이 그때 가서 취직이 돼 올 것이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역현상으로.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희 집행청으로서도 충분히 그 충정을 이해하는데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 의장 손만재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또 있으십니까?

● 송진하 위원

없습니다.

● 의장 손만재

송진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예, 잠깐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예, 말씀하시죠.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청주시 통학로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주차단속을 강화해 갖고서 그 학생들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그 방법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주중학교 같은 데는 보면 가는 길이 양쪽에다 주차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나 이런 데 협의를 해 갖고서, 그 주차장도 정식으로 돈을 받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허용을 하지 말고 애들 통로부터 확보해 놓고서 이제, 시에서는 교통빌딩이라든지 또는 학교 거기 기계공고도 있고, 학교 운동장 일부를 할애해 주면 서라도 주차장을 그쪽으로다 유도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주차빌딩 하나 세워서 그쪽에 주차료를 받아가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 가면서 아주 주차, 거기 보면 양쪽에다 길을 이렇게 그어놔 갖고서 거기는 합법적으

로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학생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공부만 하고 운동을 안하고 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건강이 좋지 않고 체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학교, 이런 데는 아마 들리는 얘기로는 “위험하니카 너희들 자전거 타지 마라” 이렇게 학교에서도 권장을 하는 모양같은데,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권장해서 학생들이 차나 예를 들어서 학교에 통학하지 말고 자전거를 이용해 갖고서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면 학생 건강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거기 연구해 보셔갖고서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십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통학로 관계는 아까 뒷부분에서 제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시청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노

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관계 없는 건데 자전거 통로의 관계, 통학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권장하거나 그렇게는 저희들 솔직히 말씀 못드렸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아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그런 것은 학생들이 훈련이 된 다음에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제가 답변 중에서 한가지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의장 손만재

예, 말씀하시죠.

● 이기수 위원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고, 이충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또 이충원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시겠지만 학교의 교실부족 문제에 대한 답변하는데 건설경기 부족으로 개교가 연기돼 갖고 아파트가 만들어 선 지역에 아파트에 학교를 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글썄요, 제 생각 같아서는 교육재정의 손실은 되겠지만 제가

교육위원활동 하다보면 말입니다, 그 도의 건축비가 늦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하게 학교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서 학교가 완공이 안됐는데도 애들은 일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교육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 학교를 짓더라도 지어 갖고서 그 학교는 다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모든 준비가 완료돼서 할 수 있게끔, 교육재정의 손실은 좀 있다고 해도 그런 방법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교육감 김영세

그것은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 원래 교육재정이 1년만큼 의존예산에 의지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은 당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만은 미리 2,3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를 2개 짓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 지어놓고 개학을 연기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고하니 아파트촌은 건립이 돼서, 아파트는 다 됐는데 입주자가 적어요. 입주자가 적어서 지금 지암초등학교같은 경우하고 신봉초등학교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6개월씩 연기해도 인원이 찰까,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데, 현재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요 몇 년 전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2년 전부터 오히려 학교를 세워놓고 애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지역에서, 기존 지역에서 오히려 인원이 과다해서 과밀학급이 와요. 그런 데는 학구조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신설학교에 지금 애들 학구를 나눠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거부해가지고 당최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만 하더라도 도심지에는 공동화 현상이 옵니다.

지금 주성초등학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우암초등학교입니다. 주성초등학교 지금 열넷 클래스밖에 없어요. 열넷 클래스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냥 놔두면 앞으로 십 클래스 유지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 학교 통·폐합 해야 하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우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구조정을 좀 해 주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듣지 않아요. 뭐 이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 우리 청주시를, 지금 학교 신설이 청주, 충주거든요. 청주, 충주인데, 청주는 조금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는 구획정리지역이 적어요. 구획정리를 해야 학교용지가 나오는데, 그게 적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청주는 앞으로 별 문제 없고, 대략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적어도 2년을 앞당겨서 지금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년에 하려니까 학교 건축도

안됐는데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은 역현상이 와 있어요. 아파트 불경기 때문에 사람이 안찬다, 그래서 지암 초등학교하고 신봉초등학교 건축 중에 있는데 개교를 오히려 늦춰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되, 충분한 답변준비가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상일 위원

네, 이상일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교장·교감·전문직,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율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235개 학교 중에 여자 교장·교감의 비율이 3.4%, 중등학교에서는 이제 5.2% 그렇고, 더구나 이제 행정직에서는 321명 중에서 5급 사무관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교육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여선생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수를 넘어가는 상

황에서 여자 교장·교감이 3.4%, 5.2%라는 것은 상당히 적다는 느낌이 갑니다.

물론, 이것을 인위적으로 점수가 안되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만들기는 어렵지만 여기 관심을 좀 갖고 여자들이 좀 관리직에 또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사무관이 좀더 승진해서 서기관이 돼가지고 교육감님 모시고 이 의회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께, 교육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미배치 상황은 아까 답변해 주시는 속에서 교장 미배치 학교는 교장 연수가 끝나는 대로 해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 교육국장 이주원

예

● 이상일 위원

그럼 9월달이면 교장이 없는 학교는 해소가 됩니까?

● 교육감 김영세

예, 다 배치가 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교감선생님은 교원정원이 증원 T/O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주원

예, 5학급 이하의 학교는 정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미배치 되는 것이거든요.

● 이상일 위원

5학급 이하는 그게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교원들의 정년을 단축할 때 국가에서 뭐라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연령이 높은 선생님들을 한 분 그만두시게 하면 젊은 교사 2.5명을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제도다, 저희들도 했는데, 지금 정부가 예산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약속을 어기고, 1 대 1도 안해 준 것 같아요. 오히려 정원이 줄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차제에 교육감님께서라도 교육부에 이런 사항을 좀 건의하셔서,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지금 거의 그 작은 면에는 학교 하나입니다. 뭐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학교가 이거 하나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개 학교는 또 면별로 유지하겠다는 게 또 정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도 없고, 교감도 없다, 사실 교감선생님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그 교감선생님 없는 학교를 몇 개 가봤는데 이 교육의 균형, 또 농촌지역의 복리후생,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교감 배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예, 그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 이상일 위원

예

● 교육감 김영세

지금 이상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정년단축문제는 일선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한 행정이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우리가 시인합니다.

하나 퇴임시키면 2.5명을 쓴다는 것이 사실상 나간 사람이 명퇴수당 다 받고 연금 다 받아요. 국고에서 따진다면 2.5배가 아니라 1 대 1도 안되는 게 더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명퇴수당 받고 나간 사람이 오히려 명퇴수당 받아먹고 또 기간제 교사 해요. 이중 삼중으로 나가지, 2.5명을 쓰는 게 아니라 한사람 퇴임함으로 인해서 곱절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런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년문제는 이미 지나간 정책이지만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우리는 분석하고 있고, 지금 바로 지적하신 이 5학급 미만의 교감 T/O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 회의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교육감 회의에서 대안까지 냈어요. 어떤 대안을 냈는고 하니, 5학급 미만에다가 그러면 교감을 T/O를 안줄 것이 아니라 교감 T/O를 주고 교감을 수업을 맡기자, 수업을 맡기고 교사 T/O를 오히려 하나 줄여다구, 교사 T/O를 하나 줄이고 교감을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하자는 이 대안까지 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에게 모든 인사권이 위임사항이 앞으로 나온다니까 그때 포함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교감 T/O만 있으면 평교사 T/O를 하나 줄이고 교감을 실제 넣었어요. 5학급 미만이라도 교감이 꼭 있어야 할 학교는 교사 T/O를 줄이고라도 교감을 넣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 특기·적성교육 담당자를 줄이고서라도 교감을 넣어주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사실은 내용적으로 몇 학교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정년단축이 갑작스럽게 되는 바람에 교감 T/O도 모자라는 입장이고, 또 실제로 지금 이상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총정원 안에서는 교육감이 재량대로 그 인원을 배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다 교육부에서 쥐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총정원을, 총정원을, 초등학교는 모자라니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중등학교도 늘기는커녕 매년 줄여갔습니다. 그 줄인 이유가 있어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적자원을 동결시켜 놓으니까 그간에 이 국가공무원의, 교원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T/O는 행정자치부에서 쥐고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을 안해 줘요. 증원을 안해 주니까 경기도 같은 데 1년에 학교가 70개 내지 80개가 늘니다. 그러면 새로 쓰는 학교의 T/O를 행정부에서 얻어올 수가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교육부에서 타 도의 중등교원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쪽에다가 보충해 준 것입니다.

지금 학교가 늘더라도요, 학교 느는 것만 치는 T/O가 증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직도 그렇고, 교장·교감도 그렇고, 이 교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늘려주지 않아요. 국가 총정원제로 동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폐단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제일 첫째 해결하기 쉽다면 교원이 지방직이 됐다면 지방직 총원에서 오히려 또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으로 해놓으니까 교육감 권한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인원동결령에 의해서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줄여가고 있는 역현상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에 나오지만 OECD 수준의 학급당 정원을 줄여가려면 교실 늘리는 것은 돈만 있으면 늘려요, 재정만 있으면.

우리 도는 어떤 재정을 동원하든간에 앞으로 특별교실 늘리는 것 7차 교육과정에 대비시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을 증원을 못해요, 선생의 T/O가 이것은 국가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수가 늘려야 학급당 정원을 줄여가지고 인원을 하향조정을 하죠, 이런 지금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적

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교육감 위임 사항으로 이것이 나갈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양해를 하세요.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예방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 생활지도담당자나 교감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그 일일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범을 보이면 저놈들이 담배를 끊을까 싶어서 선생님들이 담배를 다 끊으셨답니다. 그 몇 년 전에 충주에도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 30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애들 담배단속 하려니까, 나는 물고 다니면서 단속할 수가 없어 담배를 끊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특히, 시골에도 지난번에 그 3월달에 충주중앙중학교 학생들이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가스 마시면서 담배 피우려고ライター 불 키려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더 강화하셔서, 내년도에 제가 이거 한번 더 질문할 때 흡연자의

비율이 훨씬 낮아졌다고 하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일선 학교에 독려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이충원 위원님 질문인데, 제가 이충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충주지역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청주하고 충주는 일정지역 학교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고르지 못한 게 시내 중심학교는 학교 터도 넓고, 교실도 많은데 학생들이 자꾸 줄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지역에는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충주의 이제 중앙초등학교하고 다음에 칠금초, 탄금초, 그렇게 해서 칠금, 탄금 두 개 학교는 택지개발지역에 학교부지를 만들어 준 데라 아주 학교를 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가 지금은 47개 학급에 2,000명 학생이 있고, 칠금초등학교가 37개 학급에 약 많은 학생, 탄금 38학급, 그런데 이게 내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개 학급 내지 6개 학급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 널찍한 부지를 가진 학교 같으면은 기존 학교에다가 교실을 좀 증축해서 해결해도 되겠는데, 원체 요 근래는 학교부지들이 좁은데 증축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지역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

장으로부터 심각한 건의를 몇번 받았는데, 한번 더 충주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인근에 그 택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 생각을 하면 학군을 조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걸어서라도 비어 있는 학교로 애들을 보내면 좋은데 지금 학부모들이 이상하게 큰길도 안넘어 가려고 그리고, 적어도 1km도 안걸어서 보내려고 그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장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군조정을 해봐라” 그랬더니, 솔직하게 해도 효과가 없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손만재

답변 하시겠습니까?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 정황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수용계획 세우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반영을 하는데, 이상일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도시 내에서의 그 학군조정이라는 것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또 이게 관에서 한다고 해서 순조롭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도시중심부에 있는 공동화 현상은 뭐 우리 뿐

아니라 여러 도시가, 도시가 커질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과대학급이 일단 43학급이 넘는다고 그래서 장래의 학생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한정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수용계획을 잘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학생 유동인구를 좀더 세밀히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원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어제 질문을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그 시간 만큼 빼겠다고 그랬는데,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것인데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요, 좀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장의 권한확대에 관한 건데 이 권한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권한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데, 일선에서 보면, 이것은 모니터라고 생각하고 교육감님 들어주시기 바

랍니다. 일선현장에 보게 되면 형식적인 권한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이게 아마 똑같은 것일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마찬가지로, 누가 또 교육감을 하시든지 누가 교장을 하든지 똑같은데 이게, 이런 게 그러다 보면 현장에 가보면은요 변했다고 하는 어떤 현장 체감, 아주 변했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별로들 말씀들을 안하세요 보니까, 뭐 변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과거에 뭐 교수였을 때 물으면은 항상 “변하긴 뭘 변했느냐” 저도 그런 한사람의 하나인데, 이래서 현장의 현황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를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이것은 그저 현장의 소리니까 조금 심도있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에는 보편은 권한은 주장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아주 속말로 하면 “실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뭐 이런 내던지는 소리가 상당히 좋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다양하게 모니터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 얘기를 했다,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운영에 관한 건데, 아까 소상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설혹 저도 이거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장은 중등·초등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실질적인 운영의 문제를,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장 임명하실 때 대개 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중등이 많은 데는 가급적이면 중등 출신을 임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등이 좀 많은 데는 초등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도 학교 통합운영하는 데서는 교사와 학생수를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학교 운영에 대단히 편리성을 가져오고, 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법을 보게 되면 거꾸로 해석하면요, “중등학교 교감은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 똑같이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장은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게 되면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중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는 통합하니까 분리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

마 대개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은 자격증 소지가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중등이 많은 데는 그 교감이든 교장이든 한 분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통합운영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이 초등을 둔다든지 똑같이 중등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뭐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운영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관리국장님이 하실 건지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실 건지 모르지만은, 방학중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 방학중에 급식 못하는 애들, 이게 아까 보니까 큰 수가 아닌데, 그리고 액수로 봐도 큰 액수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해요. 대개 보면은 이런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보면은 가정이 불우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은 보충하실 수 있으면은, 큰 돈이 안드시는 것 같으니까, 또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보면 소요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것, 그것은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국장님,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좀 제가 부탁 올리고, 그 다음에 현직 교원에 대한 교원대학 파견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IMF 이후에 교원정년 이후에 교원의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을 못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타 시·도도 여건이 우리하고 비슷할 텐데, 타 시·도에는 여기와서 파견돼와 있고, 충북은 가까운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대학원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일부예요, 이것도 또 불평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에 대한 것은 양쪽에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학법인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제가 부탁말씀입니다.

이게 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것이고, 일부 사학에서는, 어떤 사학에서는 아마 여기 교육청에다가 건의문에다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뭐 어디에 어떻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편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런 것은 관리국장님, 전체 사학 투자, 건설투자 특히, 투자의 마스터플랜을 하나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라기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방향이 우선해야 하지 않나, 금년에는 너다, 만일 돈이 생기면 이걸 그 다음이다, 이래서 몇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건물을 진단한

다든지 또 학생수요, 수요 측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아, 3년 후에는 적어도 우리 차례가 돌아오겠구나, 이러면은 자꾸 이런 쓸데없는 잡음이 만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바램입니다, 제가. 참 어렵게 지금 이런 경제 속에서도 사학까지 우리가 전부 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보조를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불명불만이 늘어나면 어떻하나 해서 시설 선후 투자계획을 어떤 단을 만든다든지 그룹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좀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놓으면 좀 덜 불편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결식아동들의 그 휴가중 지원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당 휴가중 지원금은 10만원씩 되는데, 방침이 가급적이면 돈으로 주게 되면은 그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쌀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학생들의 가정에 전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원대학교 파견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정원 관계라든지 또 예산관계, 이런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재개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이 조금 대답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학법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사학법인 같은 경우는 모든 계획이 학교법인으로부터 나오고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 협조를 받을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의 양대 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석학원이나 서원학원 때문에 요즘, 특히, 서원학원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충원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제 시설문제는 노후도라든가 그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관리 상태 등을 감안해서 해 주고, 일반 인건비 정도는 또 총 수입액하고 총 소요액하고의 차이를 주어서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청석학원을 좀 우대를 해 주고, 서원학원을 좀 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청석학원에 든 준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운영비 합쳐서 194억입니다.

그런데 서원학원에는 그보다 더 많은 19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교수나 학생수나 교원수로 감안해 볼 때는 물론 청석학원이 큼니다.

그러면 청석학원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좀 있고, 또 서원학원같은 경우도 개축연도 순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청석학원의 학교가 다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보면은 보통 대성여중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개축을 해오다 보니까 대성학원이 다소 1,2년 빨리 개축이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개축연도가 빠르고 노후도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해 준 것이고, 또 충북여고가 이제 내용연수가 지난 21살의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예산을 들여서 1억 2,000여 만 원을 주려고 가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재단이 이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개축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충북여고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단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이전을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뭐 학원이 안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저희들한테 이전을 한다, 개축을 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공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일부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 교육감님을 면담한다든가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연서로써 민원을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지만은, 모든 사학의 대표는 이사장이고, 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투

(속기개시)

자계획이라든가 학교이전계획이라든가 개축 계획이 온다면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저희들도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학교를 대표하는 법인체가 있는데 구성원 각자 각자가 교육감 면담하러 온다 뭐 해서 언론에 먼저 띄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가 되셔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특정 법인에 더 편중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에 대해서 투자는 분명히 학교시설도나 내용연수가 지난 그 상태, 또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사학에 건물마다, 구축물마다 서열을 정해서 이것을 딱 몇 년 뒤에 뭐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감 김영세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회의록에, 의장님, 기재하지 말고, 내가 참고발언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회의록 기재를 좀 삭제해 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 의장 손만재

속기사, 회의록에 기재하지 마세요.

(속기중지)

● 이충원 위원

이게 참 어렵네요. 왜 제가 어려운고 하면요, 사실은 그런 깊은 의도를 가지고 제가 여쭙본 게 아닙니다. 그 내용에 분류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모르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사학투자에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들이 그저 오고갈 수 있으니까, 그저 장기적으로가 아니라도 단기적으로 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해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이런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고충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사학도 다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어줄 때도 대성, 여기에 별관건물 하나하고, 이게 서원학원보다 연도가 많 습니다, 더.

별관건물하고, 서원학원입니다, 이제는, 새로 개축해 줘야 할 학교가 이제는 특별교실이나 이런 증축을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개축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사학도 거의 다 개축해 줬어요. 하다못해 제천 대체중학교까지 우리가 보조해 줘서 다 새로 개축했 어요.

● 이충원 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겠어서, 여러 가지 현안의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양대 학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 때는 교육청에서 신문진에서든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충북여중이 대표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엄연히 운호학원, 서원학원이라는 대표하고 이쪽하고 그 창구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괜히 이런 오해의 소지가, 교육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의 투자, 진단,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하나의 제 입장에서 그저 희망이다, 요구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 의장 손만재

끝나셨습니까?

● 이충원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네,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광수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말씀하시죠.

● 김광수 위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교육감님께서 회의록에 기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는 발언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행정적인 문제하고 교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피해를 누가보고 있느냐, 그 서원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교육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한 게,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도 학교 재단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교육감님도 그런 내용의 이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란 말여.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현재 도교육청의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재단에서 요구가 없을 것 같으면 학교가 지금 찌그러지거나 어떻게 되거나 손을 못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무엇인가 연구가 돼야지 교육적으로 말하자면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행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해요, 그런데 교육적으로는 이거 어떻하느냐 이거예요. 애들이 시설이 나쁘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선생님들 불편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

● 교육감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가 개축도 해 줘야 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지, 법인측에 의한다면 우리가 사학에 대해서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배정에 의해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공립과 대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법인에서 뭐가 어려워서 못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니까 이 시설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법인 이사장한테 보냅니다.

● 김광수 위원

글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여기서 행정적으로 해서 도저히 말을 안듣고 할 적에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학생을 배정하는 문제란 말여, 그렇게 시설이 열악하고 한데 학생을 계속해서 배정해 줄수 있는가, 이 문제도 같이 연구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배정받은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자료가 되겠어요.

● 의장 손만재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수 위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런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심각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장 손만재

네, 이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계서 함께 자리하시어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들이 모두 단순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일선의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 및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폐회)

[제127회-제3차 본회의]

---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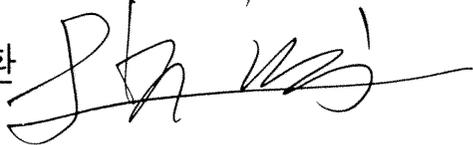
- ▶ 서면답변서(별첨 3)

제1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1. 5.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충 원 

위 원 조 일 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27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1. 5. 9. ~ 5. 11.( 3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5月 9日(水) (14:0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 第1次 本會議 ]  1. 제127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1. 5. 9. ~ 5. 11.( 3 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 채택의건	
5月 10日(木) (11:00)	[ 第2次 本會議 ]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5月 11日(金) (11:00)	[ 第3次 本會議 ]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집행정 당변)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2)

의안번호	제 127 -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 . (제 회)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 촉구결의문 채택의견

발 의 자	이기수 교육위원 외 6인
발의년월일	2001. 5. 8.

#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안)

의안 번호	제127 - 1호
----------	-----------

발의년월일 : 2001년 5월 8일  
발의자 : 이기수위원외 6인

## 1. 주 문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2. 제안사유

- 2001년 3월 5일 전국 교육위원 일동 명의로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행위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바,
-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일본정부에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만행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 3. 결의문(안) : 붙임

##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안)

최근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과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우리 민족의 쓰라린 상처를 다시 한번 짓밟아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려 함에 있어,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국교육위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검인정을 부여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숨기려 하고 있고 이를 바로 시정하지 않는 바,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150만 도민과 더불어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마땅히 우리 국민과 아시아 피해 당사국에 사죄하여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도 이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우리의 역사관을 바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에게 일본의 만행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우리와 주변국의 역사를 바로 알도록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150만 도민과 학부모 및 학생 등 우리 모두는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과거 일본의 침략적 만행을 또 다시 표출시킨 것으로써,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자기 우월을 과시하려 한 의도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 일동은 도민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I. 일본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시 시정하라.
- I. 일본정부는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우리 민족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
- I. 일본정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 앞에 굳게 약속하라.
- I. 일본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민족과 주변국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확실히 시정하라.
- I.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항상 인식하여 참회하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라.

2001년 5월 9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별첨 3)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이 충 원 위원		
답 변 자	교육국장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 질문요지

#### 3. 특수학교 운영에 관련한 질문

### 답변내용

#### 특수학교 운영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 특수학교와 같이 초·중과정 통합운영 학교들의 교장·교감 배치에 관련하여
  - 공립의 통합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초·중등자격증은 정신지체학교인 혜원학교는 교장은 초등, 교감은 중등 자격 소지자이며, 지체부자유학교인 혜화학교는 교장, 교감 모두 초등자격 소지자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특수학교 교장·교감 자격은 초·중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학교 교원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교장과 교감을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교육 전공 출신자들이 상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전공 출신자를 책임자로 배치할 것입니다.
  - 초·중 통합운영임에도 동일 출신 교장·교감이 배치된 학교는 지체부자유학교인 혜화학교이며, 그 이유는 개교 당시에 유·초등부만 설치되어 초등 출신의 학교장과 교감을 배치한 이래, 고등부가 완성된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특수학교 학생급식 관련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중식비(식품비) 지원은 1인 1식당 750원씩 220일 지원하여 연간 165,000원이 책정되어 총 2억 4,585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1인 1식당 800원 지원시 1인당 추가소요액은 11,000원으로 총 1,639만원이 추가소요 되는 실정이며,
-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의거 중식지원(결식학생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어 특수학교는 중식지원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초·중·고의 평균비율(3.84%)로 산정시 30여명(시설원생 제외)으로 추정되며, 방학기간 중 중식비 지원시 54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99.3.15 이전에는 전공과를 설치할 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교육부에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주혜원학교의 전공과를 1년으로 설치한 것은 교육부의 인가사항이었습니다. 청주혜원학교 전공과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칙 개정 후 신청을 하면,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공과를 2년으로 연장시는 시설비, 장비비를 제외하고도 인건비 3천 500만원과 운영비 700만원 등, 연 4천 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공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청주혜화학교에 전공과정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2억, 장비비 1억, 훈련지원비 2천, 인건비 7천, 운영비 700만원 등 설치 첫해에만, 약 3억 9천 7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99. 3. 15.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의 개정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전액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이 충 원 위원		
답 변 자	기획관리국장	관련부서	기획관리과

## □ 질문요지

6. 도내 전체 학교의 교실부족 해소대책과 관련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수준으로 하향하고, 도시학급수 증가나 7차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부족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 가.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으로 인한 교실부족 학교현황
  - 나. 위 학교들의 부족교실 해소대책
  - 다. 현재 세워진 학교신설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여부

## □ 답변내용

- 시 지역 학교의 교실부족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한바 있으나,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미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정부 제시기준인 초·중 35명, 고 40명으로 하향을 목표로 하는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 2000년도에 자체재원 101억 3천 만원을 투자하여 134.5실을 확충하였고,
  - 2001년도에는 교육부 시설교부금과 자체재원 등 139억 1천5백 만원을 투자하여 149실을 증축 추진하는 등 이미 완료하여 중·고등학교는 어려움이 없으나,

- 일부 과대(초등학교 :43학급 초과) 및 과밀(초등 :급당 43명이상)이 예상되는 초등학교는 이의 해소를 위한 자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청주지역 덕성초 봉정초, 울랑초 등 과대학교는 인근에 택지개발 시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구조정 등을 통한 해소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 수곡초등학교는 인근에 산남(3)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학구조정을 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 상당초, 교동초등학교는 인근의 운동초등학교로의 학구조정으로 해소코자 검토중이며,
  - 충주 중앙초등학교는 인근에 택지개발 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분리하고
  - 제천중앙초등학교는 2003년 3월 장락초등학교 신설로 해소가 됩니다
  - 그러나 최근 택지개발된 분평지구의 원평초등학교의 경우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학교부지 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디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디다

○ 양해하여 주신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하향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도내 각급학교의 부족교실 현황 등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디다.

○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인 학교신설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디다.

- 현재 신설추진중인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 2002년도 개교예정 학교는 개신초, 명암초 등 2개교이고
-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는 신봉초, 장락초, 지암초 등 초등학교3개교와 중학교는 충주에 탄금중 1개교 그리고 하북대 지역에 설립 추진하는 북대고등학교 1개교 등 총 7개교입니다.
- 이중 당초 2003년 9월 개교 목표로 청주 봉명·신봉지구에 추진중인 (가칭) 신봉초등학교는 건설경기부진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미 확정으로 주민입주 시기가 불투명하여 2004년 3월로 개교시기를 변경하였으며,

- 2003년 3월 개교 목표로 청주 용암2지구에 추진중인 (가칭) 지암초등학교도 건설경기 부진에 의한 아파트 분양률의 저조로 주민입주시기가 지연되어 개교시기를 2003년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만
- 향후 건축계획 주민입주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충권 위원님 요구자료)

### 금당학생수 하향에 따른 부족교실 현황 및 대책

연도별	구분	금당학생수		예상학 급수(A)	보통교 실수(B)	부족교실 수(C=A-B)	수용대책(D)			상향편성 (C-D) 증축여건 불가로 하향 유보	비고
		시지역	기타지역				학교신설	증축	계		
2002년	초등학교	40명	38명	4,167	4,105	62	21		21	41	
	중학교	39명	37명	1,590	1,584	6		6	6		
	고등학교	40-35명		1,544	1,557	-13			0		
	소계			7,301	7,246	55	21	6	27	41	
2003년	초등학교	38명	36명	4,399	4,232	167	43	39	82	85	
	중학교	37명	35명	1,668	1,649	19	10	9	19		
	고등학교	40-34명		1,541	1,544	-3	9		9		과대학교관리 부대학교신설
	소계			7,608	7,425	183	62	48	110	85	
2004년	초등학교	36명	35명	4,596	4,417	179	9	38	47	132	
	중학교	35명		1,801	1,755	46	33	13	46		
	고등학교	40-33명		1,539	1,541	-2			0		
	소계			7,936	7,713	223	42	51	93	132	

※ 2004년까지 학급당학생 수를 OECD국가 수준인 35명으로 하향하는데 필요한 보통교실을 2000-2001년도에 증축 완료

※ 그 이후 학구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 IMF로 미분양되었던 A.P.T의 분양, 가동증단중이던 공장 기동등에 의한 학생 수 증가등에 따라 부족 수용시설 추가 발생

○ 학교신설의 교실수는 개교시 소요교실 수만 표기함

○ 증축어진 불가로 상향편성이 예상되는 학교는 2002년 청주10교, 충주1교, 제천1교등 12교 41학급  
(초등학교만 해당됨)

2003년 청주13교, 충주3교, 제천1교등 17교 85학급

2004년 청주13교, 충주3교, 제천3교등 19교 132학급

○ 고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감소로 부족교실 없음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이 충 원 위원		
답 변 자	기획관리국장	관련부서	학교운영지원과(시설과)

## □ 질문요지

10. 청주, 충주지역 사학법인에 대한 최근 3개년간(1999, 2000, 2001)의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내역에 대한 질의에서  
(해당법인 : 청석학원, 서원학원, 세광학원, 미덕학원, 신명학원)
- ① 공·사립 구분없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사립 간 시설환경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학법인중 시급히 보조해 주어야 하는 학원은 어디이며,
  - ② 향간에 사립학교의 공평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불평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서원학원의 낡은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과,
  - ③ 청주, 충주지역 사학법인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 □ 답변내용

- ① 사립학교 법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건축년도,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현 시점에서 어느 법인이 시급하다고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② 사립학교의 시설지원은 특정학원에 대해 편중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시설의 개축에 대하여는 건축년도, 노후도에 따라 학교법인의 증·개축 계획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원학원의 시설물은 전 학원이사장의 횡령도피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법인측에서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타 사학법인 보다는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 사립학교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학교법인에서 종합적인 시설 투자 계획을 결정하고 투자 재원 부족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사학법인에 지원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99년도 151억 7백만원, 2000년도 197억1천만원, 금년도에는 207억5천2백만원을 지원 또는 지원할 계획으로 사학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 시설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법인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청주, 충주지역에 소재한 청석학원의 4개법인에 지원한 시설사업비는 '99년도 33억1천3백만원, 2000년도 48억4백만원, 금년도에는 6억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법인별로 지원된 일반운영비와 시설사업비의 세부내역 및 지원계획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개축건물의 최초 건축년도

- 대성여중 본관(1936년 이후 1952년 이전 건물)
- 대 성 초(1953~1956년 건물)
- 충북여중(1960~1969년 건물)

※ 내구연한 경과 건물

- 충북여고(1966년 21실)
- 대성여중(1967년 별관 12실)
- 운 호 중(1969년 32실)
- 운 호 고(1969년 16.5실)

# 사학법인 예산 지원내역

○ 1999년도

(단위 : 천원)

법인별	시설사업명 및 금액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명	금액	인건비	운영비	계	
청석	대성초 교실증축 외 7건	1,828,369	4,223,549	461,446	4,684,995	6,513,364
서원	운호중 지붕방수 외 7건	436,967	4,067,735	404,606	4,472,341	4,909,308
세광	세광중 교실개조 외 4건	282,061	1,886,366	186,738	2,073,104	2,355,165
미덕	충주상고 특별실증축 외 7건	499,200	2,335,935	246,494	2,582,429	3,081,629
신명	충원고 급식소 외 2건	266,565	1,190,216	104,849	1,295,065	1,561,630
계		3,313,162	13,703,801	1,404,133	15,107,934	18,421,096

○ 2000년도

(단위 : 천원)

법인별	시설사업명 및 금액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명	금액	인건비	운영비	계	
청석	대성중 사물함 외 4건	655,166	5,199,729	593,790	5,793,519	6,448,685
서원	충북여중 교실개축 외 3건	2,575,934	5,579,902	456,070	6,035,972	8,611,906
세광	세광중 천정보수 외 2건	274,478	2,470,314	237,692	2,708,006	2,982,484
미덕	미덕중 지붕방수 외 5건	394,839	3,295,967	303,286	3,599,253	3,994,092
신명	신명중 급수대 외 4건	903,880	1,422,012	151,366	1,573,378	2,477,258
계		4,804,297	17,967,924	1,742,204	19,710,128	24,514,425

○ 2001년도

(단위 : 천원)

법인별	시설사업명 및 금액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명	금액	인건비	운영비	계	
청석	충주상고 조도개선 외 2건	282,350	5,457,375	765,141	6,222,516	6,504,866
서원			5,700,416	647,397	6,347,813	6,347,813
세광	세광중 심야난방 및 수변전	318,598	2,648,090	255,821	2,903,911	3,222,509
미덕	미덕중 급수대 공사	14,600	3,323,701	419,385	3,743,086	3,759,486
신명			1,343,917	190,402	1,534,319	1,534,319
계		615,548	18,473,499	2,278,146	20,751,645	21,367,193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이상일, 조일환 위원		
답변자	교육감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총무과)

## □ 질문요지

3. 교장, 교감, 전문직 및 행정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과 관련한 질문(이상일)  
 17. 교감 이상의 교원 직급 중 여교원의 비율(2001 현재)과 여교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조일환)

## □ 답변내용

- 현재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중 여성의 비율은,
  - 초등의 경우 교장 235명 중 여교장이 5명, 교감 235명 중 여교감이 11명으로 여자 교장, 교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6명)입니다.
  - 중등의 경우 교장 128명 중 여교장이 8명, 교감 140명 중 여교감이 6명으로 여자 교장, 교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5.2%(14명)입니다.
-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중 여성의 비율은,
  - 교육전문직 전체 195명 중 여자 장학관이 1명, 여자 장학사, 연구사가 21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입니다.
- 본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행정직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 6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 정원 321명 중 여성공무원 5급 1명, 6급 53명으로 전체의 16.8%입니다.
  -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2001년 1월에 실시한 전문직 전형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여 모집 인원의 20%를 여교원에서 채용하였으며,

- 여교원의 보직교사 진출 확대, 각종 연구대회 참여 권장, 전문직 전형 응시를 적극 권장하는 등,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교 육 감	관련부서	중등교육과

## □ 질문요지

1. 고입 비평준화 시행 이유, 시행 현황 제도의 개선점

## □ 답변내용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0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에는 우리 도에서 청주시만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비평준화 지역은 학력격차에 의한 학교간 서열화, 과열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역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막고 개인의 학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인성 및 창의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조성 등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2002학년도 고입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방법을 전면 내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비평준화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적이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 원		
답 변 자	공보감사담당관	관련부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질문요지

1. 2000년 감사원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답변내용

- 감사기간 : 2000. 9. 18~10. 6
- 지적건수 : 9건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충주 중앙중학교 부근에 강모씨가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위하여 위 장소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이 있어 충주교육청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부결하여 '98. 1. 13.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그 후 다른 민원인 김모씨가 이미 부결된 같은 장소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위하여 위 장소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자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98. 1. 23. 발급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담당공무원을 2001. 1. 29.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명 - 징계시효가 2년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어 징계조치를 할 수 없음)

2. 충북과학교육원 신축공사의 당초도급자(공동도급 신화주택 및 유림건설)에게 지급한 선금을 보증시공자인 보성건설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 선금급 미반환액과 이자를 합한 319,640천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

- ▶ 공동도급회사인 (주)유림건설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제기로 '98. 9. 4. 청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본청이 승소하였으나, '99. 11. 10. 유림건설의 2심 승소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본청이 승소할 경우에는 선금지급보증서에 의거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으며, 판결이 지연되거나 패소할 경우 보성건설로부터 징구한 이행각서에 의거 현재 보성건설에서 시공중인 공사비등으로 채권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3. '98. 3. 교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교사 1명의 재직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 18,218,400원을 지급하였음.
    - ▶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부당지급한 수당 18,218,400원은 즉시 회수 조치하였습니다.(2001. 1. 15. 주의조치)
  4. 학교법인 세광학원과 한림학원이 '98~'99회계연도에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세환급금 13,319,400원을 학교회계로 전출시키지 않고 일부를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 법인세환급금 미전출액 13,319,400원을 2001. 2. 8. 해당 학교회계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세광학원 : 9,988,970원, 한림학원 : 3,330,430원)
  5. 오석초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가 기준(10mg/ℓ 이하)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질산성질소 제거장치 설치 등 대책을 강구치 않음.
    - ▶ 오석초에 질산성질소 제거용 정수장치를 2000.12.6 설치하였으며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2명)
  6. 청주기계공고 기숙사 개축비를 교육부에 특별교부 신청하면서 과다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615,907천원 발생하여 내부 집기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음.
    - ▶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4명)

7.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함에 있어 과원이 없는 사립학교에서 2000.9.1. 32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하여 당해 학교에서는 특별채용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교사 24명을 기간제교사(23명)나 신규교사(1명) 임용으로 충당하였고, 8명은 결원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할 경우 가능한 과원교사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람.

▶ 향후 사립교사 특채시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정확히 조사하여 특별채용 과목 및 인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8. 원어민교사용 주택을 임차할 때에는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임차하여 충주여중, 제천여중 전세보증금은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단재교육연수원, 단양중은 전세권만을 설정하고 채권확보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제천여중은 2000.11.20 전액 회수 조치하였고, 충주여중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단양중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단재교육연수원은 2000.7.2 계약 만료후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 다른 주택으로 임차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 학교의 쓰레기 소각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충주공고의 5개 중·고교에서는 철거하지 아니하여 학교 미관만 해치고 있음.

▶ 6개교중 5개교는 철거 완료하였고(2000년 10월 2개교, 11월 1개교, 2001년 1월에 2개교), 충주공고는 철거중에 있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송진하 위원, 조일환 위원		
답 변 자	교육국장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 □ 질문요지

5.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의 실태에 관련 질문(송진하)
2. 3월 초등교원 임용사항(조일환)

## □ 답변내용

송진하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의 질문이 같은 사항이므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의 연령은 20대 291명, 30대 63명, 40대 1명, 계 355명이고,  
2001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의 연령은 20대 102명, 30대 5명, 40대 75명, 50대 75명, 계 257명입니다.
- 임용시험 합격자중 교육과정 시기별 교직 중단 인원수는  
2000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중 1명이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교직을 중단하였고,  
2001년도 임용시험 합격자중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 7명,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 64명, 제4차 교육과정 시기에 15명,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 19명,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18명,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15명, 계 138명 입니다.
- 임용시험 합격자중 직업별 인원수는  
기간제교사 97명, 가사종사 12명, 회사원 11명, 학원강사 6명, 공무원 3명, 상업 9명, 전도사 1명이고,  
명예퇴직교사는 7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였습니다.

○ 임용교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 3. 9일자 추가 임용교사는

- 비교적 연령이 높고, 교직 중단 경력기간이 있기 때문에
- 제7차 교육과정운영과 학교현장 적응능력, 그리고 교단선진화에 따른 기교재 활용, 초등영어교육 등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 첨단기교재 활용 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에 컴퓨터능력 실기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 임용전 직무연수를 단재교육원에서 3일간 실시하였으며
-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 신규교사 현장적응연수와 현직연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년 여름방학중에 실시하는 120시간의 영어기본연수에 추가발령자 전원을 우선 추천·수강토록 하여 영어 지도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이상일, 조일환 위원		
답 변 자	교육국장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 질문요지

2.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미배치 학교 현황은?(이상일)
3. 소규모학교의 교장, 교감 미배치 학교 현황과 학교운영의 문제점과 해소 전망(조일환)

## □ 답변내용

이상일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은 성격이어서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미배치 학교 현황은,
  - 초등의 경우 교장 임용자원 부족으로 교장 미배치 학교는 6개교이고, 교감 미배치 학교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6개교입니다.
  - 중등의 경우도 교장 임용자원이 부족하여 교장 미배치 학교가 12개교이며, 교감 미배치 학교는 소규모학교 5개교입니다.
-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 교무관리의 어려움 및 교사 업무 가중으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 교장 출타시 학교 관리와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충원대책 및 해소 전망은,

- 교장 미배치 학교는 교장 자격연수가 끝나면, 2001년 9월 1일자로 모두 배치될 것이며, 교감 미배치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이 배정되어야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교육국장	관련부서	초등교육과

## □ 질문요지

6. 여름, 겨울방학 실시현황과 5일 이상 교육상 필요하여 창의적 방학 운영 사례(5일이상)
16. 교원 성과상여금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 □ 답변내용

여름, 겨울방학 실시현황과 5일 이상 교육상 필요하여 창의적 방학 운영 사례(5일이상)에 대하여

- 초·중등교육법47조에 의하면 학교의 휴가기간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내 초·중·고등학교 동·하계 방학기간은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안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40일 내외로 시행하고 있으며,
  - 방학기간을 조정하여 효도방학 등 체험학습을 여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성과상여금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 교원성과상여금제의 운영현황은
  - 2001. 2. 1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업무를 추진하던 중

- 2001. 2.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방침에 따라 지급업무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 교직단체와 대부분의 교원은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급지침이 통보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교 육 국 장	관련부서	중등교육과(초등교육과)

## □ 질문요지

4.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교원특별채용 현황과 채용형식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9. 보충수업, 자율학습 현황과 모의고사 실시 현황
13. 교원노조의 장기 농성 이유와 단체교섭 합의시기와 내용은?

## □ 답변내용

-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교원특별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12명, 1999년도 33명, 2000년도 42명, 2001년도 10명으로 총 97명을 특별채용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 등의 채용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여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은 과원이 발생한 사립학교의 해당교과 교사 중에서 추천받아 면접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으나, 앞으로 더욱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 보충·자율학습 및 모의고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2001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교과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고3 학생은 주당 10시간, 고2 이하 학생은 주당 5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자율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 학생들에게 학교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도 지역 실정과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시설 개방도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연 2회 이내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에 참여할 수 있어 학교별 계획에 의거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의해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에 일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연합 학력고사를 3학년은 6회, 1·2학년은 2회 계획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이미 2회 실시하였습니다.

○ 교원노조 장기 농성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00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교섭의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및 인사와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노동관계 법규에 명시되었기에 제외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교원노조측은 위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도 교섭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려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7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충북지부는 갑자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00년 8월 30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 후, 전교조 충북지부의 천막농성 기간 중에도 교육청 실무자와 교원노조 사무처간 비공식 접촉을 꾸준히 한 결과, 노사 양측은 교섭소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60여일간의 장기 천막농성으로 교원노조 및 도교육청 직원들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천막 생활이 건강을 해칠 것 같아 단체교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은 2000년 10월 30일 제7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 본문 28개조, 보칙, 부칙 4개조와 별도 전문, 본문 10개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0년 11월 22일 제3차 본교섭위원회에서 조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주요 합의사항은 조합활동의 보장과 조합의 시설 편의 제공, 교원의 근무조건 보장과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합의하였고, 별도 합의 사항으로 전문에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차원에서 근거 없는 음해성 상호 비방 행위 일체를 금지하기로 확약하고, 2000년도 이전비 지급과 조합 전용 사무실 제공 및 정책간담회 개최(4개월) 등 10개항을 합의했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교 육 국 장	관련부서	중등교육과(초등교육과)

## □ 질문요지

4.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교원특별채용 현황과 채용형식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9. 보충수업, 자율학습 현황과 모의고사 실시 현황
13. 교원노조의 장기 농성 이유와 단체교섭 합의시기와 내용은?

## □ 답변내용

-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교원특별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12명, 1999년도 33명, 2000년도 42명, 2001년도 10명으로 총 97명을 특별채용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 등의 채용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여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은 과원이 발생한 사립학교의 해당교과 교사 중에서 추천받아 면접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으나, 앞으로 더욱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 보충·자율학습 및 모의고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2001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교과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고3 학생은 주당 10시간, 고2 이하 학생은 주당 5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자율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 학생들에게 학교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도 지역 실정과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시설 개방도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연 2회 이내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에 참여할 수 있어 학교별 계획에 의거 모의고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의해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에 일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 연합 학력고사를 3학년은 6회, 1·2학년은 2회 계획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이미 2회 실시하였습니다.

○ 교원노조 장기 농성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00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교섭의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및 인사와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노동관계 법규에 명시되었기에 제외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교원노조측은 위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도 교섭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려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7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충북지부는 갑자기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00년 8월 30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 그 후, 전교조 충북지부의 천막농성 기간 중에도 교육청 실무자와 교원노조 사무처간 비공식 접촉을 꾸준히 한 결과, 노사 양측은 교섭소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60여일간의 장기 천막농성으로 교원노조 및 도교육청 직원들의 가정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천막 생활이 건강을 해칠 것 같아 단체교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은 2000년 10월 30일 제7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 본문 28개조, 보칙, 부칙 4개조와 별도 전문, 본문 10개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0년 11월 22일 제3차 본교섭위원회에서 조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주요 합의사항은 조합활동의 보장과 조합의 시설 편의 제공, 교원의 근무조건 보장과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합의하였고, 별도 합의 사항으로 전문에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차원에서 근거 없는 음해성 상호 비방 행위 일체를 금지하기로 확약하고, 2000년도 이전비 지급과 조합 전용 사무실 제공 및 정책간담회 개최(4개월) 등 10개항을 합의했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교 육 국 장	관련부서	교육정보화과

## □ 질문요지

10. 인터넷 유해 사이트 지도내용과 현재까지의 대외 적발 사건 내용은?

## □ 답변내용

○ 인터넷 유해 사이트 지도내용?

- 「사이버 사회와 윤리」 사이버 시민윤리 정립을 위한 장학자료 제작 보급 ; 중등교육과
- 「Clean Cyber World」 영상교재 CD-ROM Title 407copy 보급
- 「청소년윤리지도 안내서」 99부 보급(지역교육청, 고등학교)
- 「애들아 모여라」 청소년 권장 사이트 모음 219부 보급
- 「바른 인터넷 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네티켓 교육방안」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 ; 남일초등학교
- CEO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01. 4. 23(월)
  - 장 소 : 교육과학연구원
  - 대 상 : 초·중·고·특 교감, 전문직 510명
  - 내 용 : 「정보화 역기능 대처 방법」

○ 인터넷 유해 사이트 대외 적발 내용?

- 학교홈페이지 점검 지도
  - 상업용 배너 삭제 지도
  - 게시판에 불건전한 내용 삭제 지도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교 육 국 장	관련부서	평생교육체육과

## □ 질문요지

11. 먹는물 관리의 방법과 부적합 먹는 물 현황과 조치사항
12.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과 조치결과 개선대책은?
- 15 충북소년체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

## □ 답변내용

○ 먹는 물 관리의 방법과 부적합 먹는 물 현황과 조치사항은

-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및 갈수기 또는 장마가 끝난 후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 ※ 검사기관의 업무과다와 인력·장비보유 여건상으로 보아 월1회 수질검사 의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월 1회 위생점검과 6개월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하여, 2차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상수도 인입을 적극 추진하고, 상수도 인입이 불가능한 학교는 지하수 재개발, 시설 수리, 정수시설 설치 및 소독 등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된 학교는 1998년도 13개교, 1999년도 6개교, 2000년도 4개교 총 23개교로, 5개교 상수도 인입, 3개교 지하수 재개발, 1개교 시설수리, 4개교 정수시설 설치, 10개교 소독 및 청소 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일반세균 또는 대장균군 검출학교에 대하여는 소독을 실시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음

○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원인과 조치결과 개선대책은?

- '98년 이후 학교급식의 확대실시와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고온 현상으로 면역력이 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 식중독 발생시 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업체 제재 및 보상청구, 원인제공자와 관리자에 대하여 엄중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개선책으로는 위생시설·설비의 확충과 노후 급식시설의 개·보수,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학교급식 HACCP시스템 적용 확대와 학교급식 위생관리팀을 구성하여 현장 위생지도·점검을 통하여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능력 배양 및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충북소년체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종합점수제인 충북소년체전은 선수 육성 여건이 좋은 시 지역만 매년 입상하고, 선수육성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은 입상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종합점수제를 메달집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으나, 메달집계제로 할 경우 각 시·군이 비 인기종목 육성을 소홀히 하거나 입상 가능한 선수만 출전시킬 염려가 있어 시·군의 불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지정종목 육성을 활성화시켜 선수저변확대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 충북소년체전은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회로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를 겸하고 있어 일반학생 참여 및 종목의 확대운영은 어려우므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클럽대항 학교간 경기대회의 규모확대와 운영방법 개선으로 일반학생을 많이 참여시켜 11개 시·군이 화합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 충북소년체전의 각 지역 순회개최 문제도 검토해 보았으나 충북소년체전은 전국소년체전 도 대표 선수선발을 하는 대회이므로 시설 기준이 맞지 않는 곳에서는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차후 군 지역 체육시설이 확충되면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기획관리국장	관련부서	총 무 과

## □ 질문요지

14. 충북교육청내의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현황 및 이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 사항과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에 따라 “약식명령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직의 경우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처분 양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 답변내용

- 연도별 형사사건 현황을 말씀드리면
  - '98년도 7건, '99년도 14건, 2000년도 10건, 2001년도 6건으로 총 37건입니다.
- 사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3건, 명예훼손 4건, 사기 2건, 횡령4건, 남녀관계 3건, 기타 11건입니다.
- 교육청의 조치사항은
  - 징계양정기준 및 행정처리기준에 의거 해임3명, 정직2명, 감봉 3명, 견책 3명, 경고 6명, 주의 13명을 처분하였고, 기타는 사건이 진행중이거나,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으로 통보된 사건은 불문 처리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 요건중 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6조(교육감의 퇴직), 제61조(교육감의 자격)의 규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자)의 규정에 의거 선출직공무원은
  - 선거권이 없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에만 한하여 그 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기획관리국장	관련부서	기획관리과

## □ 질문요지

8. 청주, 충주, 제천 지역의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 □ 답변내용

질의하신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출입 신고시에 철저히 단속해 주기 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하여

-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의무취학업무추진계획을 시행하거나 교육장이 통학구역 설정할 때 학교와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학구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진학업무추진계획에 의거 배정원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구 위반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공문을 시행하여 위장 전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장 전·입학 사례가 근본적으로 척결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나 학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위장전입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조 일 환 위원		
답 변 자	기 획 관 리 국 장	관 련 부 서	시 설 과

## □ 질문요지

### 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 교실 등의 중요시설의 설치근거는?

(각급학교의 교실 등 중요시설이 동일규모의 학교인데도 어느 학교는 충분하고 어느 학교는 부족한 실정으로서 학교간 격차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완급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급학교 시설에 대한 소요판단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 □ 답변내용

-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실의 학교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교실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급격한 산업화 사회의 현상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이농현상 등 학생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도시지역에서는 학생수용 시설이 부족한 추세에 있고 농촌지역은 여유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부학교에서는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교실 등의 활용이 충분한 학교가 있는 반면, 학생수의 증가 및 변동이 적은 일부학교는 학교시설에 대한 부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설학교의 경우는 자체기준 및 제7차 교육과정상의 소요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 기존 학교의 시설확충은 장기학생 수용계획상의 학생수 변동추세와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신축성 있게 확충하여 나아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요지서

성 명	이충원 교육위원		
질문대상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요시간	20 분
제 목	교육행정질문 (1)		
<p>(질문요지)</p> <p><b>1. 현직 교원들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과정 파견과 관련한 질문</b>  가. 1999년도까지의 교원대학 파견 교원 수  나. 현재 우리 도에서 파견교육을 중단한 이유  다. 앞으로 파견교육을 재개할 계획과 그 시기</p> <p><b>2. 학교장 권한 확대와 관련한 질문</b>  가. 2000년도와 비교하여 금년도에 학교장 중심 운영을 위해 시행된 개선책  나. 타 시·도와 비교하여 학교장 중심운영을 위해 시행 중인 특색있는 대책</p> <p><b>3. 특수학교 운영에 관련한 질문</b>  가. 특수학교와 같이 초·중과정 통합운영 학교들의 교장·교감 배치에 관하여  (1) 통합 특수학교 교장·교감의 초·중등 소지자격증  (2) 초·중별로 보아 구성학생 및 교원수가 더 많은 전공출신이 책임자로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 그 이유  (3) 초·중 통합운영임에도 동일출신 교장·교감이 배치된 학교와 그 이유  나. 특수학교 학생급식 관련 문제점  (1) 학생 1인당 연간 책정된 중식비 예산액과 단가 800원으로 인상시 추가소요액  (2) 결식 학생수 및 방학기간 중 중식비 지원시 소요예산액  다.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에 관하여  (1) 전공과정 교육연한을 2년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와 2년으로 연장시 소요예산액  (2) 전공과정 없는 학교에 전공과 설치시 연간 소요예산액</p> <p><b>4. 학교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질문</b>  가. 일선학교 인사위원회 실태조사 여부  나.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  다.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이유  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책</p>			

# 질문요지서

성 명	이 충 원 교육위원		
질문대상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요시간	20분
제 목	교육행정질문 (2)		
<p>(질문요지)</p> <p><b>5. 학교급식 HACCP시스템 도입에 관련한 질문</b></p> <p>가. HACCP시스템 도입학교 현황 및 계획</p> <p>나. HACCP시스템 도입학교의 시설·장비·인력 보유 현황</p> <p>다. HACCP시스템 정착을 위한 선행 조건</p> <p><b>6. 시 지역 학교의 교실부족 해소대책과 관련한 질문</b></p> <p>가.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으로 인한 교실부족 학교현황</p> <p>나. 위 학교들의 부족교실 해소대책</p> <p>다. 현재 세워진 학교신설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p> <p><b>7. 교원단체와의 교섭 진행상황과 관련한 질문</b></p> <p>가. 각 교원단체와의 현안 문제</p> <p>나. 각 교원단체와 타결된 교섭사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사항</p> <p>다. 문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p> <p><b>8.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질문</b></p> <p>가. 실업계 재학생 중 진학 희망자 수</p> <p>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희망자에 대한 지도내용</p> <p>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진학지도에 따른 문제점</p> <p>라. 최근 3년간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자격증 취득현황</p> <p><b>9. 근무시간 중 교원의 각종 회의참석과 관련한 질문</b></p> <p>가. 지난 해 일년간 교원참석 각종 회의의 총 횟수</p> <p>나.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으로 인한 수업결손은</p> <p>다. 수업결손에 대한 보완대책과 근본적으로 회의 개최를 줄일 수 있는 방안</p>			

# 질문요지서

성명	이충원 교육위원		
질문대상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요시간	20분
제목	교육행정질문(3)		

(질문요지)

10. 청주, 충주지역 사학법인에 대한 최근 3개년간 (1999, 2000, 2001)의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액 내역

법인별	시설사업명 및 금액	일반운영비	계

해당법인명 : 청석학원, 서원학원, 세광학원  
미덕학원, 신명학원

